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공통국어2

강호영 외

1 시야를 넓히는 말과 글

01 인공 지능을 보는 다양한 관점

스스로 계획하기

008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009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011쪽

1 ② 2 ② 3 두뇌

1 이 영상 자료는 인공 지능의 발전 양상을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만, 미래에 인공 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예측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영상 자료는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인공 지능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인공 지능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등의 질문 형식으로 수용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③, ④ 이 영상 자료는 인공 지능의 정의와 핵심 기술, 발전 양상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이 영상 자료는 인공 지능 기술의 개념, 핵심 기술, 발전 양상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2 인공 지능의 핵심 기술로는 기계가 직접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내는 '머신 러닝'과, '머신 러닝'의 하위 분야인 '딥 러닝'이 제시되었다.

오답 풀이 ① 세 번째 장면에서 인공 지능의 핵심 기술이 '머신 러닝'과 '머신 러닝'의 하위 분야인 '딥 러닝'이라고 하였다.

③, ④ 세 번째 장면에서 '머신 러닝'은 미리 입력된 명령문이 없어도, 기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⑤ 세 번째 장면에서 기계가 직접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는 기술이 '머신 러닝'이라고 하였다.

3 영상 자료의 네 번째 장면에서 '딥 러닝'의 개념을 설명할 때 두뇌 형태의 이미지가 제시된다. '딥 러닝'이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확인 문제 +

015쪽

1 ⑤ 2 ③ 3 ④

1 '홍'은 '나'가 수정한 작업이 맘에 들지 않자, 그동안 과로했으니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말한다. '나'는 '홍'의 말이 '그것'을 데려오라는 주문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실제로 '홍'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로봇 도우미 업체 담당자는 '그것'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라고 표현하며 인공 지능 사이보그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② '나'는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겼지만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그것'에게 회사 일을 맡기고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것'이 출근한 후 '나'가 출근한 날 '홍'이 '나'를 불러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지 않냐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그것'이 적극적인 태도로 상사의 신임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가 직접 한 수정 작업 결과물을 본 '홍'의 반응은 좋지 않았으며, '나' 또한 고개를 숙이며 좌절한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나'가 '그것'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나'는 '그것'이 내용은 아이디어를 도저히 표현해 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게 메인 페이지 디자인 작업을 맡긴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동료들이 '나'를 피한 것은 메인 페이지 디자인 작업이 끝나고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한 이후이다.

② '나'가 '그것'에게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맡겼기 때문에 열중 정도의 휴가가 생긴 것이다.

④ '나'가 '그것'을 업무에 사용한 것을 동료들에게 들켰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구'와 '홍'이 인공 지능 로봇에게 회사 일을 맡기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3 ㉔은 '나'를 대체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은 관계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그것'과 업무 능력을 비교하여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아니다.

확인 문제 +

017쪽

1 ④

1 필자는 소설 「기계는 멈춘다」와 스튜어트 러셀 교수의 교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 시대에 인공 지능에게 주도권과 통제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인간이 사유하고 성찰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휘력 UP

026~027쪽

1 (1) ㉠ (2) ㉡ (3) ㉢

2 (1) 제어한다 (2) 감원 (3) 진척 (4) 절감했다

3 (1) ㉢ (2) ㉡ (3) ㉠ (4) ㉣

4 ⑤

5 죽이 맞다

6 ⑤

1 (1) '상충되다'는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2) '불화하다'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다. 또는 서로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다.'라는 의미이다.

(3) '와해되다'는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 2 (1) 이 문장에는 '기계나 설비 또는 화학 반응 따위가 목적에 알맞은 작용을 하도록 조절하다.'라는 뜻의 '제어한다'가 적절하다. '제안하다'는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라는 의미이다.
- (2) 이 문장에는 '사람 수를 줄임.'이라는 뜻의 '감원'이 적절하다. '감소'는 '양이나 수치가 줄.'이라는 의미이다.
- (3) 이 문장에는 '일이 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감.'이라는 뜻의 '진척'이 적절하다. '진출'은 '어떤 방향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감.'이라는 의미이다.
- (4) 이 문장에는 '절실히 느끼다.'라는 뜻의 '절감했다.'가 적절하다. '절실하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빠져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이다.

- 3 (1) '퇴보'는 '정도나 수준이 이제까지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게 됨.'이라는 뜻이다.
- (2) '범용'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는 것.'이라는 뜻이다.
- (3) '극약'은 '극단적인 해결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 (4) '위탁'은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이라는 뜻이다.

- 4 ⑤에는 '정보나 의견, 감정 따위를 나눔.'이라는 뜻의 '공유(共有)'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5 '죽이 맞다'는 '서로 뜻이 맞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어안이 병병하다'는 '뜻밖에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머리를 쥐어짜다'는 '몹시 애를 써서 궁리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 6 고향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⑤에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속수무책(束手無策)'이 적절하다.
- ②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적절하다.
- ③ '하는 일 없이 세월만 헛되이 보냄.'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허송세월(虛送歲月)'이 적절하다.
- ④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적절하다.

- 01 (나)는 미래에 로봇으로 인해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다)는 인간이 기계에 의존하여 주체성을 잃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인공 지능 기술이 무엇인지, 인공 지능의 핵심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나)는 인공 지능 로봇인 '그것'을 소재로 현대인인 '나'가 처한 삶을 그리고 있다.
- ③ (다)는 기계에 의존하면 인간이 자율성을 잃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④ (가)는 영상이기에 (나), (다)와 달리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02 (가)는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필자의 주장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에는 기계 의존으로 인한 디스토피아를 그린 소설 「기계는 멈춘다」를 인용하여 인간의 기계 의존을 우려하고, 인간이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인공 지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소설로 (가)와 달리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 ③ (다)에도 인공 지능이 발전한 사회에 대한 우려가 드러난다.
- ⑤ (다)의 필자는 인간이 기계에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인공 지능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03 '머신 러닝'은 미리 입력된 명령문이 없어도, 기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라는 명령문을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4 '그것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안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아 회사에 로봇임을 들키지 않은 사실에 안도한 것이다.

- 05 '러셀' 교수는 ③를 보며 기계에 의존하면 인간이 자율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인간이 문명을 스스로 경영하는 능력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06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에는 편향된 관점으로 정보를 수용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참조하며 균형 있는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내용의 글과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적절한 주제 통합적 읽기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려면 먼저 읽기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적절한 활동이다.
- ③ 주제 통합적 읽기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적절한 활동이다.
- ④, ⑤ 주제 통합적 읽기는 다양한 글과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며 정보끼리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해야 하므로 적절한 활동이다.

소단원 평가

028~031쪽

- 01 ⑤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② 07 ②
08 ① 09 ④ 10 ⑤ 11 ㉞는 지혜를 추구하는 주제적인 삶을 말한다.

07 (나)의 '나'는 인공 지능 로봇 '그것'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 자신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인공 지능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관점이 영화나 소설에서 각각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로 묘사된다고 설명할 뿐, 유토피아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미래 사회에 인간이 느낄 혼란을 보여 주는 허구적인 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그러므로 정보 전달이 목적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다)는 고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인간의 사유 능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능력이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 낸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⑤ (다)는 알고리즘 추천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능동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가)는 인공 지능의 발전 양상과 이러한 인공 지능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뉜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므로 인공 지능 기술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나)는 인공 지능 로봇이 '나'의 일을 대체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이 느낄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 혼란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다)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이 기계에 의존하기보다, 자율성을 잃지 말고 사유하고 성찰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09 (다)에서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이 사유하고 성찰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가 인공 지능 기술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이 지녀야 할 능력을 알고 싶어하는 읽기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② (나)의 배경이 인공 지능 로봇이 상용화된 미래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통해 인공 지능 시대에 갖춰야 할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으므로 읽기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는 인공 지능 로봇인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⑤ (다)는 현대의 인공 지능 기술과 동 떨어진 시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인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읽기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0 <보기>는 '미래 노동'을 인간이 인공 지능 로봇을 조작·제어·감독하는 일, 기계 노동을 관리하는 일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의 필자는 이를 인간이 주도권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볼 것이므로, 인간이 지혜를 추구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보기>의 '미래 노동'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다)와 <보기>는 모두 '인공 지능 시대의 노동 분야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인공 지능을 거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는 미래 인공 지능 시대에서 인공 지능 로봇과 기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예상하는 내용이 나타나긴 하지만, 수동적인 삶을 경고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보기>의 '완전한 대체'는 로봇과 인공 지능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므로, (다)의 '지혜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삶'과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의 '제한적인 위탁'은 인간이 인공 지능 로봇을 조작·제어·감독하거나 기계 노동을 관리하는 등의 '미래 노동' 모습이다. 이것이 '주도권과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과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지성에 걸맞은 삶이 최선이자 가장 즐거운 삶이다."라고 말했다. 인간만의 특권인 지혜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서 찾아서 썼다.	☐
주어진 형식에 맞춰 썼다.	☐

02 생각을 나누는 독서와 발표

스스로 계획하기

032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033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040쪽

1 ② 2 ③ 3 ② 4 ④

1 이 글에서 인지적 공감은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힘이라고 했으므로 '인지적 공감은 공감의 범위를 넓히는 힘으로 기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④ 인지적 공감은 외부 집단까지 포용하는 공감이다.

③, ⑤ 인류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두 가지 모두의 힘을 바탕으로 문명을 건설하였다.

2 이 글에서 필자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려면 공감이 미치는 반경을 넓혀야 하며, 공감의 원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회적 독서 활동은 독서 활동 결과를 타인과 나누는 것이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비공개로 감상을 남기고 자신만 보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 볼 수 없다.

4 타인과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독서 활동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타인과 나의 의견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사회적 독서 활동의 가치로 볼 수는 없다.

확인 문제 +

046쪽

1 ⑤ 2 ④ 3 ④ 4 ⑤

1 발표 내용과 관련해 찾은 자료들이 타당하고 믿을 만한지 분석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이며, 발표 전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예상 청중을 분석할 때 살펴볼 점은 예상 청중의 관심사, 배경지식, 이해 수준, 주제에 대한 태도 등이 있다.

2 노 키즈 존에 대한 질문을 청중에게 던지고 청중이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노키즈 존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있다.

3 '자료 2'는 노 키즈 존이 운영 편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자료 2'를 바탕으로 노 키즈 존을 시행하고 있는 업주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의 노 키즈 존의 인지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중들도 노 키즈 존을 알고 있는지 그 인지도를 파악하며 발표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② '자료 1'은 노 키즈 존에 대한 여론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2'에는 노 키즈 존이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이자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노 키즈 존이 어린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 행위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발표의 중간 부분에서는 발표로 전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전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료 3'의 노 키즈 존에 반대하는 측 주장과 근거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4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파악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은 발표를 듣는 청중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발표 내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어휘력 UP

048~049쪽

1 (1) ㉠ (2) ㉡ (3) ㉢

2 (1) 교류하는 (2) 통합할 (3) 원심력 (4) 퇴보하지

3 (1) ㉡ (2) ㉢ (3) ㉠ (4) ㉣

4 ㉡

5 골이 깊어지다

6 ㉡

1 (1) '숙지하다'는 '익숙하게 또는 충분히 알다.'라는 의미이다.

(2) '구축하다'는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우다.'라는 의미이다.

(3) '인지하다'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라는 의미이다.

2 (1) 이 문장에는 '문화나 사상 따위를 서로 통하게 하다.'라는 뜻의 '교류하다'가 적절하다. '교제하다'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다.'라는 의미이다.

(2) 이 문장에는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다.'라는 뜻의 '통합하다'가 적절하다. '통용하다'는 '일반적으로 두루 쓰다.'라는 의미이다.

(3) 이 문장에는 '원운동을 하는 물체나 입자에 작용하는, 원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힘.'이라는 뜻의 '원심력'이 적절하다. '구심력'은 '원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힘.'이라는 의미이다.

(4) 이 문장에는 '정도나 수준이 이제까지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게 되다.'라는 뜻의 '퇴보하다'가 적절하다. '퇴임하다'는 '맡고 있던 직책이나 임무에서 물러나다.'라는 의미이다.

3 (1) '입증'은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이라는 뜻이다.

(2) '토대'는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3) '과잉'은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음.'이라는 뜻이다.

(4) '반경'은 '반지름.'이라는 뜻이다.

4 ②는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잘 설득하고 달려 권함.'이라는 뜻의 '중용(慇懃)'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5 '골이 깊어지다'는 '관계가 악화되거나 멀어지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밭이 넓다'는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오금을 퍼다'는 '마음을 놓고 여유 있게 지내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②에 '지란지교(芝蘭之交)'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배은망덕(背恩忘德)'이 적절하다.

③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수구초심(首丘初心)'이 적절하다.

④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풍수지탄(風樹之歎)'이 적절하다.

⑤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우공이산(愚公移山)'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050~053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① 05 공감의 구심력보다는 원심

력을 만들어야 한다.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④

11 ④ 12 ③ 13 예상 청중을 분석한다. 14 ③

01 (사)에서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려면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지만, 인지적 공감의 한계를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02 <보기>는 주최 측이 '애완견 축제'에서 '반려견 축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동물을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반려자라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담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글과 <보기>의 내용을 연결하면, 인류가 동물이라는 외부 집단까지 포용하여 공감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려견이 공감 대상의 범위에서 멀어졌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3 (다)에서는 공감을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의 두 유형으로 나누고 차이점을 대조하여 각 공감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04 <보기>의 필자가 제시한 방법은 모두 인지적 공감을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법 ①이 다른 집단에 쓸 공감을 줄이는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방법 ②는 업주와 어린이의 보호자가 서로 인지적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어린이 공간을 확대하고, 확대하는 정책은 공감 대상에 어린이를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자기 집단에 대해서만 과잉 공감하고, 어린이라는 타 집단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노 키즈 존 관련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제시한 해결 방법은 모두 타 집단에 대해 공감하는 인지적 공감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05 (사)에서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려면 공감이 미치는 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즉 공감의 반경과 관련된 공감의 원심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에서 사용된 '공감의 힘'을 뜻하는 공감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사용하여 썼다.	☐
'~보다는 ~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비교 형태의 문장으로 썼다.	☐

06 (다)에서 정서적 공감은 익숙하고 쉽고 자동적이라 하였고, 인지적 공감은 자동적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정서적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달리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 오답 풀이** ②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모두 문명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필자는 공감을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는 두 개념을 동일한 위치의 개념으로 본 것이며, 어느 하나를 상위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인지적 공감은 자동적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태어날 때부터 발달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필자는 (사)에서 공감이 미치는 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며 인지적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지적 공감이 정서적 공감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07 ㉠에서의 '넘어서다'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 따위를 넘어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다. ㉢에서의 '넘어서다'는 '높은 부분의 위를 넘어서 지나다.'라는 뜻이다.

- 오답 풀이** ① '심화되다'는 '정도나 경지가 점점 깊어지다.'라는 뜻이다.
 ② '구축하다'는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우다.'라는 뜻이다.
 ④ '증진'은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더 늘어 가고 나아감.'이라는 뜻이다.
 ⑤ '맞닥뜨리다'는 '줄지 않은 일 따위에 직면하다.'라는 뜻이다.

08 이 발표의 예상 청중은 '우리 반 친구들'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만 큼 노 키즈 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녔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우리 반 친구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학교 앞 카페 사례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분석이다.
 ② 청중은 '우리 반 친구들'이므로 노 키즈 존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청중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 키즈 존의 개념을 제시해야겠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④ 청중이 경험한 것을 고려하여 청중의 예상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청중은 어린 시절 노 키즈 존을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청중의 배경지식을 파악하고 이끌어 내는 데에 적절한 분석이다.

09 발표의 끝에는 청중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 오답 풀이** ① 노 키즈 존의 긍정적인 점을 제시한다면 노 키즈 존의 부정적인 면을 알리려는 발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 발표 주제는 노 키즈 존의 확산과 노 키즈 존에 찬성하는 여론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 키즈 존과 가게의 매출은 관련 없는 주제이다.
 ③ 노 키즈 존의 개념은 '처음' 부분의 개념 소개에서 자세히 다루어야 한다.
 ④ '문제점 1'은 노 키즈 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문제점 2'는 노 키즈 존은 그곳을 경험한 어린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둘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다.

10 이 발표는 노 키즈 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노 키즈 존의 확산과 이에 찬성하는 의견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노 키즈 존의 연령대를 규정하는 내용의 토론회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실제 '노 키즈 존'의 사진은 청중이 개념을 이해하고,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② '노 키즈 존 찬성' 비율의 그래프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제시하며 노 키즈 존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③ '중간' 부분의 '문제점 1'의 근거로 활용하기 적절한 자료이다.
 ⑤ '끝' 부분에서 노 키즈 존의 문제점을 요약하려고 하므로 요약 정리한 피피티(PPT)는 활용하기 적절한 자료이다.

11 이 발표에서 최근에 보도된 뉴스 자료를 활용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2 발표할 내용을 수집하고 조직할 때에는 수집한 자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예상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발표를 준비하기 전, 청중들을 분석해야 효과적인 발표를 준비할 수 있다.
②, ④, ⑤ 발표를 하기 전, 발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소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숙지하며 미리 연습해야 성공적인 발표를 할 수 있다.

- 13 발표하기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르면,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정한 후에는 발표를 들을 예상 청중을 분석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중을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 14 발표 내용이 가치 있고 유용한지, 질의응답 시 효과적으로 답변하였는지,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는 발표자가 자신의 발표를 점검하는 기준이다.

대단원 평가 ①

056~059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인간 특유의 성찰의 힘 07 ④ 08 ⑤ 09 인류가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지각하는 대상의 범위를 점점 확장해 왔기 때문이다. 10 ④ 11 ① 12 ③ 13 ③

- 01 (가)~(다)는 '인공 지능'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영상, 소설, 논설문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 (다)가 인공 지능 시대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것과 달리 (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공 지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허구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인공 지능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은 (나)이다.
④ (가), (나), (다)에는 '인공 지능'을 특정 사물에 비유한 내용이 없다.
⑤ (가)는 객관적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나), (다)는 작가와 필자의 주관에 담겨 인공 지능 시대에 당면할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02 이 발표의 목적과 주제는 인공 지능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의 주체적인 사유가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다)를 발표에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인공 지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가)를 활용하여 인공 지능의 유용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한계를 말할 수는 없다.
③ (나)에서 인공 지능 로봇은 '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작가는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나)를 활용하여 인공 지능과 인간의 상호 작용의 이점을 말할 수는 없다.
⑤ (다)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의 자율성과 성찰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인공 지능 기술을 모두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다.

- 03 (가)에서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인공 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 문제 현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04 ㉠은 집을 유배지처럼 보고, 집안일에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에게 회사 일을 맡기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 05 (다)의 필자는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인간 특유의 성찰의 힘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공 지능에게 성찰의 힘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③ '나(A)'가 '그것'보다 회사 일과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A)'가 자존감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② '필자(B)'는 인간이 사유하고 성찰하며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고민과 성찰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⑤ '나(A)'는 '그것'에게 회사 일을 맡기면 삶의 여유를 찾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 06 (다)의 필자는 인공 지능에게 주도권과 통제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유하고 성찰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소중히 여기고 키워 가야 할 것은 인간 특유의 성찰의 힘이라고 말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찾아 썼다.	☐
4여절로 썼다.	☐

- 07 (바)에서 필자는 인류가 맞닥뜨린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려면 공감의 힘이 미치는 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이자 이 글의 주제로 볼 수 있다.

- 08 필자는 인지적 공감을 '공감의 원심력'이라고 부른다. 원심력이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다.

- 09 응용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인류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지각하는 대상의 범위를 점점 확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기 때문이다.' 형식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0 필자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고, 이 둘 중의 어느 쪽이 강화되느냐에 따라 우리 문명이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의 논지에 따르면 차이점을 비교하여 주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발표는 공식적인 말하기이므로, 청중에게 말하듯이 하는 구어체로 바꾸고, 청중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② 공감의 구심력과 원심력의 힘의 방향을 원과 화살표로 표현하여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라)에 언급된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연구 결과를 그래프 자료로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발표를 할 때 청중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청중이 발표에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표 전략이다. 그러므로 갈등과 편가르기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청중에게 물으며 발표를 시작한다면 효과적인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1 발표할 내용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은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 오답 풀이** ② 청중이 발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청중들이 흥미를 느낄 것인지 관심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청중들의 주제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⑤ 청중들의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12 지난 1년 동안 정신 건강 상담을 받은 어린이들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난 1년 동안 정신 건강 상담을 받은 어린이들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는 노 키즈 존의 문제점으로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없는 자료이다.

- 오답 풀이** ① '문제점 1'에서 노 키즈 존이 어린이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차별을 하면 안되는 근거가 되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표지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문제점 1'에서 노 키즈 존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으므로, 노 키즈 존이 시행되고 있는 가게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문제점 2'에서 노 키즈 존이 어린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같은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문제점 3'에서 노 ○○ 존으로 변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노 ○○ 존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13 이 발표의 목적과 주제는 노 키즈 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노 키즈 존이 확산되는 것과 이를 찬성하는 의견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 키즈 존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발표에서 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01 (가)는 영상, (나)는 소설, (다)는 논설문이다. (다)는 필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므로, 필자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설명적 성격의 영상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는 것은 논설문을 읽는 방법이다.
 ② (가)는 설명적 성격의 영상이다. 필자의 정서와 태도를 이해하며 읽는 것은 주로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이다.
 ③ (나)는 소설이다. 필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주로 수필을 읽는 방법이다.
 ⑤ (다)는 논설문이다. 인물의 심리와 태도, 갈등 양상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주로 소설을 읽는 방법이다.

02 (가)~(다)에서 인공 지능 시대의 유토피아를 그려 낸 글은 없다. (가)에서 인공 지능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는 영화나 소설에서 인공 지능에 의해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가 묘사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는 하였지만 유토피아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인공 지능의 발전 양상을 말하고 있으므로 답변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은 사유하고 성찰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답변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인공 지능에게 주도권과 통제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찰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했으므로 답변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나'는 인공 지능이 자신을 대체하며 동료들과 멀어지면서 혼란스러움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 시대에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답변할 수 있다.

03 (가)의 영상을 본 학생들은 인공 지능의 발전 양상과 인공 지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긍정적,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인공 지능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나)를 보며 인공 지능 로봇에게 밀려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공 지능 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그려 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나'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이 공존하는 삶을 디스토피아 세계로 그려 내고 있다.
 ② (나)의 '그것'은 '나'의 회사 일을 완벽하게 해내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까지 대체하고 있다.
 ③ (나)의 '그것'은 회사 생활을 완벽하게 하여 인간인 '나'의 능력을 뛰어넘었다.
 ④ (나)의 '나'에게 '구'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그것'은 '홍'과 마음이 잘 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04 (다)의 필자는 인간이 인공 지능 시대에 사유하고 성찰하며 주체적으로 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인물인 '나'에게 인공 지능 로봇에게 의존하기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조언할 것이다.

05 <보기>는 미래에는 로봇과 인공 지능이 인간의 노동의 일부를 대신할 것이며, 이로 인해 노동 분야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인간이 인공 지능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대단원 평가 ②

060~063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⑤ 06 ① 07 ①
 08 ③ 09 ② 10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11 ① 12 ⑤

서 인간의 절대적인 노동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듯 <보기>는 미래의 노동 풍경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인간의 철학적 사고 능력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나'는 '그것'에게, <보기>에서는 세탁기를 예로 들어 인간의 노동을 기계에 위탁하는 것을 보여 준다.
 - ② (다)의 필자는 인간의 성찰의 힘을 강조하며 인류가 인공 지능에게 주도권과 통제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보기>는 인간의 노동이 미래에는 인공 지능 로봇을 조작·제어·감독하는 일이나 기계 노동을 관리하는 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인공 지능 로봇이 '나'의 노동을 완전하게 대체하지만, <보기>는 인간의 노동 일부만 기계에 위탁하는 형태일 뿐, 완전하게 대체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06 ㉠의 '죽이 척척 맞다'는 '서로 뜻이 맞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라는 뜻의 '이심전심(一心傳心)'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상전벽해(桑田碧海)'는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 ③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이라는 뜻이다.
 - ④ '망운지정(望雲之情)'은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 ⑤ '창해일속(滄海一粟)'은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07 '자료 1'은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이 자신이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구분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했고, '자료 2'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자료 모두 주제 통합적 읽기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어느 자료 하나가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② '자료 1'은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고 싶어하는 읽기 목적에 부합한다.
 - ③ '자료 1'은 무엇을 알고 싶은지 모르는 채로 살면 인공 지능에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공 지능에게 조종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고 싶은지 분명히 인식하고 인공 지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읽기 목적에 부합한다.
 - ④ '자료 2'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이 기계 지능에 동화되어 새로운 곳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며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읽기 목적에 부합한다.
 - ⑤ '자료 2'는 인공 지능이 과거로부터 배워서 주어진 선택지들 중에서 한 가지를 지능적으로 선택하며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생각하는 전혀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하며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읽기 목적에 부합한다.

08 (마)에서 인지적 공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공감의 원심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09 같이 다니는 친구들만 잘 챙기는 것은 내부 집단에 집중하는, 공감의 구심력이 큰 상황인 것이다. 맥락상으로는 외부 집단도 챙기겠다는 내용이므로, 공감의 원심력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인지적 공감을 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면 좋을지 궁금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생각이다.
 - ③ (나)에서 공감을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적절한 생각이다.
 - ④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내부 집단에 과잉 공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는 적절한 생각이다.
 - ⑤ 강아지를 키우며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공감의 반경이 넓어진 것이므로, 공감의 원심력이 넓어졌다는 생각은 떠올릴 수 있는 적절한 생각이다.

10 필자는 인류가 문명의 위기를 맞닥뜨렸다고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공감의 원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마)에서 찾아서 썼다.	☐
'~기 때문이다.' 형식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1 발표자는 '노 키즈 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청중에게 던지고 답변을 유도하며 노 키즈 존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이 발표에서 여론 조사 결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이 발표에서 발표자는 청중에게 노 키즈 존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물어봤지만 발표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 ④ 이 발표에서 노 키즈 존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청중들이 방안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12 <보기>의 청중은 노 키즈 존 확대에 반대한다는 발표의 주제와 대립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반대 측의 입장만 말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발표자가 청중이 가지고 있을 주제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기자재 환경은 <보기>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②, ③ 청중의 관심도, 배경지식은 <보기>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④ 발표의 논리적 모순 여부는 <보기>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참고 자료

예상 청중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관심사: 흥미를 느끼는 내용이 무엇인가?
- 배경지식: 발표 주제와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 이해 수준: 발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
- 주제에 대한 태도: 주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2 우리 삶을 비추는 한국 문학

01 청산별곡 / 십년을 경영하여

스스로 계획하기

068쪽

1 × 2 ○ 3 ×

마리 알고 가기

069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071쪽

1 ④ 2 (1) 청산 (2) 새 3 ① 4 이끼 묻은 쟁기일랑

- 이 작품은 3음보, 3·3·2조의 율격으로 a-a-b-a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각 연의 마지막에 '알리알리 알량성 알라리 알라'와 같은 특정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묻고 답하는 형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 (1) 화자는 1연에서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 '청산'을 설정하고 있다.
(2) 2연의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 화자는 새의 울음을 듣고 삶의 비애와 고독을 느끼고(2연) 밤이 되자 절망적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4연).
- 화자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이라고 할 때, 3연의 '잉 무든 장글란'은 '이끼 묻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확인 문제 +

073쪽

1 ③ 2 ① 3 (1) 기적 (2) 술 4 a 바다 b 누무자기
c 구조개

- 6연의 '바다'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가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찾는 도피의 공간이다.
- 5연의 '돌'은 가혹하고 피할 수 없는 화자의 비극적 운명을 상징한다.
- (1) 7연의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허거를'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구절을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8연에서 화자는 술로써 괴롭고 고달픈 현실의 시름을 달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 이 작품의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면 1~4연은 청산을 중심으로 한 노래, 6~8연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노래로 대칭적 구조를 이

룬다. 이렇게 볼 때, 1연에서 청산에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인 멸위, 두래와 6연의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인 누무자기, 구조개는 대응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확인 문제 +

075쪽

1 ③ 2 ② 3 강산은 들일 뉘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화자는 오랫동안 노력하여 초려 삼간을 짓고, 이 중 한 칸은 화자가 쓰고, 한 칸은 달에게, 한 칸은 청풍에게 준다는 표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자연과 하나가 된 몰아일체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설의적 표현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이 작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조에서는 달과 청풍을 의인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중장에서 화자와 가까이 있는 자연물을 보고 있으며, 중장에서는 초려 삼간에 들일 수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멀리 있는 강과 산을 보고 있다. 따라서 근경에서 원경을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④ 부분이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대유법을 사용하여 달, 청풍, 강산으로 자연을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⑤ '~보리라'와 같이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화자는 초려 삼간에 들일 수 없는 '강산'을 병풍처럼 돌려 두겠다는 발상을 통해 자연과 함께 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십년을 경영하여』의 창작 시기

이 작품은 송순이 중종 28년인 1533년에 팔작지붕 형태의 정자인 면양정을 세운 후 지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송순이 면양정을 짓는 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며, 이 작품의 초창의 시구인 '십년을 경영하여'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휘력 UP

084~085쪽

1 (1) ㉠ (2) ㉡ (3) ㉢

2 (1) 너보다 (2) 덜 익은 강술 (3) 정든 임 (4) 말라 죽은 가지

3 (1) ㉠ (2) ㉡ (3) ㉢ (4) ㉣

4 ㉣

5 가슴이 미어지다

6 ㉢

- (1) '비애'는 '슬퍼하고 서러워함.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시름'은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의미이다.
(3) '예찬'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함.'이라는 의미이다.

- 2 (1) 이 문장에서 '넌라와'는 '너보다'라는 뜻이다.
 (2) 이 문장에서 '설진 강수'는 '털 익은 강술'이라는 뜻이다.
 (3) 이 문장에서 '어른 님'은 '정든 임'이라는 뜻이다.
 (4) 이 문장에서 '삭정'은 '말라 죽은 가지'라는 뜻이다. '쭈정'이
 는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지 아니한 곡식이나 과일 따
 위의 열매.'라는 뜻이다.

- 3 (1) '연장체'는 여러 연이 연속되는 형식으로 고려 가요의 대표적
 형식 중의 하나이다.
 (2)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는 평시조 형식에서 초장, 중장,
 종장 가운데 어느 장이 두 구 이상 평시조보다 길어진 시조이다.
 (3) '음보'는 시가의 심의 주기로 3음보, 4음보 등이 있다.
 (4) '후렴구'는 노래 곡조 끝에 같은 가락으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매 연마다 후렴구를 반복하면 운율감과 형식적 통일성을 느낄
 수 있다.

- 4 ④에는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이라는
 의미의 '풍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이라는 뜻을 지닌 '은거'가 들어
 가기에 적절하다.
 ② '사이좋게 잘 어울림.'이라는 뜻을 지닌 '친화'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③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
 올림.'이라는 뜻의 '수양'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⑤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곳'이라는 뜻의 '도피처'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5 '가슴이 미어지다'는 '마음이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 견디기
 힘들게 되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가슴을 태우다'는 '몹시 애태우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가슴에 새기다'는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
 의 관용 표현이다.

- 6 ①, ②, ④, ⑤ 모두 '안분지족(安分知足)'이라는 한자 성어가 들
 어가기에 적절하지만 ③에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인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086~089쪽

-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② 10 ⑤ 11 ③ 12 ④ 13 ⑤ 14 (가): 삶
 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로 보고 있다. (나):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친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15 ④ 16 ④ 17 ④
 18 ⑤

- 01 제시된 시가는 고려 가요로, 고려 가요는 3장 형식을 지니지 않
 는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을 지니는 것은 시조이다.

- 02 '멸위랑 드래'는 농사를 지어서 얻기보다는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열매이다. 즉 이는 '청산'에서 소박하게 먹는 음식으로, 화
 자가 유랑하면서도 농사에 전념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잉 무든 장글란'은 '이끼 묻은 쟁기일랑', '날이 무딘 병기
 일랑', '이끼 묻은 은장도일랑'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화자가 유랑
 민이라고 한다면 '이끼 묻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가던 새'는 '갈던 발이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화자가 유랑민이라
 고 한다면 이는 유랑민이 갈던 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③, ⑤ 화자를 유랑민의 입장으로 볼 때, '청산'에 살고 싶다는 것은 삶
 의 터전을 잃은 후 괴롭고 시름이 많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
 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03 ㉔에 제시된 '바다'는 '청산'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
 시름을 잊고자 하는 도피처이자 화자의 이상향이다.

- 오답 풀이** ① ㉔의 '새'는 화자처럼 울고 있는 존재로 화자가 동병상련
 (同病相憐)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② ㉔의 '밤'은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이 홀로 있는 화자가 절대적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다.
 ③ ㉔의 '돌'은 화자가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삶의 운명을 상징한다.
 ⑤ ㉔의 '강수'는 술을 의미하며 현실의 비애를 잠시 잊게 하는 매개체
 이다.

- 04 '사스미'를 '사슴이'로 해석할 경우,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 해금
 을 연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사슴은 여기에서 자연물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물과 하나가 되고 싶은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④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현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
 다거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사슴은 자신과 다른 처지의 자연물도 아니며, 이를 보고 화자가 고
 독감을 느끼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 05 (나)는 화자가 그리운 임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낸
 작품으로 특정한 청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종장은 근경, 종장은 원경을 보여 주어 시선의 이
 동이 드러난다.
 ② (가)의 '돌', '청풍', '강산'은 자연의 일부분으로 자연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 방법을 대유법이라고 한다.
 ③ (가)에서 '달'과 '청풍'에게 방 한 칸을 맡겨 둔다는 표현은 의인법이
 사용된 것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여 준다.
 ④ (나)에서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일정 부분을 잘라서
 두었다가 접거나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다.

- 06 (가)와 (나)는 평시조로 3장 6구의 형식으로 4음보 율격을 지니
 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진 평시조로, 연을 구
 분하는 분연체가 아니다.
 ③ (가)와 (나)는 시조로 후렴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후렴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갈래는 고려 가요이다.
 ④ (가)와 (나)는 시조로 조선 시대에 성행했던 시가 문학이다. 고려 시
 대에 성행했던 시가는 고려 가요이다.
 ⑤ 시조의 주요 향유 계층은 양반층이었지만 (나)는 기녀가 지은 시조
 로 양반층의 사고방식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07 이 작품에서 '달'과 '청풍'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을 향한 사대부의 충성심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큰 집이 아니라 소박한 '초려 삼간'을 지은 것은 화자가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② 십 년을 경영하여에서 십 년 동안이나 자연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초가집 세 칸이 '나', '달', '청풍'으로 꽉 찼기 때문에 '강산'은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서 풍류를 만끽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초가집 세 칸 중 한 칸은 화자가 말고, 나머지 칸은 '달'과 '청풍'에게 각각 맡긴 것은 화자가 자연과 함께하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08 오상고절(傲霜孤節)은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자연 친화를 노래한 (가)와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이라는 뜻이다.
 ②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이라는 뜻이다.
 ③ '안분지족(安分知足)'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이라는 뜻이다.
 ④ '유유자적(悠悠自適)'은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이라는 뜻이다.

09 (가)의 '자연'은 속세를 떠나 은거를 하면서 즐기는 풍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의 '자연'은 열심히 노동을 하며 즐거움을 찾는 공간이다.

10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화자가 사랑하는 임이 오신 밤으로 화자가 임이 오지 않는 상황을 거부한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동지'는 달 기나긴 밤'은 임이 없는 밤으로,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이기 때문에 화자의 외로움이 부각되는 시간이다.
 ② 동지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와 같은 행동은, 훗날 임이 왔을 때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③ '구뵈구뵈 퍼리'라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담긴 시구이다.
 ④ '춘풍'은 봄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이 부재하는 추운 '동지'와 대조되며 임과 함께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11 (다)의 '나무'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청산'과 '바다'는 화자가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 가고자 하는 도피처일 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은 아니다.
 ② (나)의 '자연'은 옆에 두고 유유자적하며 함께 살고 싶은 존재이지, 삶의 고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는 아니다.
 ④ (가)의 '자연'은 도피처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의 '자연'은 이상향이 아니다.
 ⑤ (나)의 자연은 화자와 물아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존재이고, (다)의 '자연'은 작가가 닮고 싶은 존재이다.

12 (나)는 중장에서 근경을, 종장에서 원경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등을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는 '청산', '밤', '물', '바다' 등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물'과 '청풍'을 의인화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다)는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의문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질문하며 성찰하고 있다.

13 (가)에서의 '자연'은 삶의 애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처, (나)에서의 '자연'은 함께하고자 하는 친화의 대상이며 물아일체의 대상이다. 즉 (가)와 (나) 모두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삶의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4 (가)에서는 자연을 고단한 삶의 비애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 혹은 이상향으로 보고 있다. (나)에서는 자연을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친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바르게 썼다.	☐
(나)에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바르게 썼다.	☐

15 <보기>의 ㉠, ㉡는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성, ㉢, ㉣는 시조의 형식적 특성이다. (가)는 고려 가요, (나)는 시조이므로 (가)에 ㉠, ㉡를, (나)에 ㉢, ㉣를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3연의 '물 아래'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7연의 '희곡'은 '사슴'을 '사슴'으로 해석할 때, 사슴이 해금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시어가 현실의 고통을 외부적 요인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17 (나)에서 초려 삼간 중 한 칸을 화자인 '나'가 쓰는 것은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미련이 남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8 ㉠은 자신이 본받고 싶은 존재로, 흔들리지 않고 말없이 그 자리에서 있는 의연한 존재이다.

- 오답 풀이** ① ㉠은 울고 있는 존재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화자가 비애와 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가 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는 '청산'과 대비되는 속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을 바라보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의미한다.
 ③ ㉢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둘러 두고 즐기겠다는 화자의 풍류가 드러난다.
 ④ ㉣은 작가가 '나무'를 본 곳으로 작가는 나무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있다.

02 속미인곡 / 진달래꽃

스스로 계획하기

090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091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093쪽

1 ① 2 ⑤ 3 박옥경 4 ③

1 자문자답(自問自答)은 스스로 묻고 대답한다는 뜻으로 이 작품은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속미인곡」과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둘 다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작품이다. 「구운몽」의 작가 서포 김만중은 그의 저서 「서포만필」에서 우리나라의 참 문장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뿐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문학성을 갖추고 있다.

- 2 이 시가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성 화자 중 '여인 1'은 보조적 인물이고, '여인 2'는 중심 화자이다. '여인 1'은 '여인 2'에게 질문이나 위로를 하며 '여인 2'의 하소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3 조선 선조 때는 동인과 서인의 당쟁이 극심했고, '정철'은 서인 세력의 주요 인물로 당쟁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다. 이 시가는 '정철'이 탄핵을 받고 낙향하여 지은 가사이다. 이러한 창작 배경으로 볼 때, 임금이 있는 한양을 의미하는 시어는 임이 계신 '복옥경'이라고 할 수 있다.
- 4 '여인 1'은 ㉠ '글란 칭가 마오'라는 말을 통해 임과 이별하여 한탄하고 있는 '여인 2'를 위로하고 있다.

확인 문제 +

095쪽

1 ⑤ 2 ⑤ 3 구름, 안개 4 ⑤

- 1 '여인 2'는 자신의 죄와 조물주의 탓으로 임이 떠났다고 자탄하고 있을 뿐 자신을 찾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 2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임의 소식을 알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을 상징한다. '반벽청등'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다른 시어와 그 의미가 다르다.
- 3 이 작품에서 '여인 2'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눅픈 뒷'에 올랐다

가 '구름', '안개'와 같은 장애물로 임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 '물 7'로 장소를 이동하였으나 '바람', '물결'과 같은 장애물로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 4 '낙월'은 지는 달로, 멀리서 임을 바라보고 금방 사라지는 존재이다. '여인 1'은 '여인 2'에게 임의 옷을 적시며 임의 가까이에서 있을 수 있는 '구준비(긋은 비)'가 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렇듯 '낙월'과 '구준비'는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로 둘 다 '여인 2'의 정서와 관련된다.

확인 문제 +

097쪽

1 ④ 2 ① 3 (1) 애이불비 (2) 반어적 4 진달래꽃

- 1 이 시는 시상의 전개에 따라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지만 공간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 2 화자는 1연에서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고, 2연에서 떠나는 임을 축복하고 있다. 3연에서는 화자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밟고 가라며 자기희생의 태도를 보이고, 4연에서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며 인고의 자세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시상 전개에 따라 '체념 → 축복 → 희생 → 극복'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3 (1) '애이불비(哀而不悲)'는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음'이라는 뜻이다. 슬픈 상황에 처했음에도 슬픔을 절제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애이불비'의 정서가 드러난다.
(2)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임이 떠난다면 나는 슬퍼서 눈물을 펄펄 흘릴 것이다.'라는 심정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4 이 작품에서 화자의 분신이며, 자기희생적 태도와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는 시어는 '진달래꽃'이다.

어휘력 UP

106~107쪽

- 1 (1) ㉠ (2) ㉡ (3) ㉢
- 2 (1) 탄핵 (2) 좇고 (3) 낙향 (4) 면면히
- 3 (1) ㉠ (2) ㉢ (3) ㉡ (4) ㉣
- 4 ㉡
- 5 얹친 데 덮친다
- 6 ㉢

- 1 (1) '대담하다'는 '답력이 크고 용감하다.'라는 뜻이다.
(2) '두둔하다'는 '편들어 감싸 주거나 역성을 들어 준다.'라는 뜻이다.
(3) '대응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라는 뜻이다.

- 2 (1) '탄핵'은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당쟁'은 '당파를 이루어 서로 싸우던 일.'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탄핵'이 적절하다.
 (2) '쫓다'는 '눈여겨 보거나 눈길을 보낸다.', '쫓다'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다.'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쫓고'가 적절하다.
 (3) '낙향'은 '시골로 거처를 옮기거나 이사함.', '귀양'은 '죄인을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곳에서만 살게 하던 형벌.'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낙향'이 적절하다.
 (4) '면면히'는 '끊어지지 않고 죽 잇따라.', '만만히'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면면히'가 적절하다.
- 3 (1) '지척'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2) '감흥'은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3) '복귀'는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감.'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주체적'은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4 '허사'의 뜻을 생각할 때, ②의 문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함'이라는 의미의 '허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허풍'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아무것도 없이 텅 빈'이라는 의미의 '공허'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들'이라는 의미의 '허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5 '엷친 데 덮친다'는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나다.'의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으로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와 의미가 통한다. '도마 위에 오르다'는 '어떤 사물이 비판의 대상이 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며,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 6 '애이불비(哀而不悲)'는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이라는 뜻이다. 이 뜻과 관련 있는 시구는 임과 이별하는 슬픈 순간에도 겉으로 슬픔을 내보이지 않겠다고 하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이다.

소단원 평가

108~111쪽

- 01 ② 02 ⑤ 03 ⑤ 04 ② 05 '낙월'은 소극적 사랑이고, '구준비'는 적극적 사랑이므로, '여인 1'은 '구준비'처럼 적극적 사랑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06 ④ 07 ② 08 ② 09 ③ 10 ④ 11 ④ 12 ③ 13 ③ 14 '낙월'과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사랑)을 나타낸다. 15 ⑤

- 01 이 시가는 가사 갈래에 속한다. 가사 갈래는 주로 '서사 - 본사 - 결사'의 3단 구조를 취하며 이 시가 역시 '서사 - 본사 - 결사'로 구성되어 있다.

- 02 '여인 1'은 '여인 2'를 위로하고 조언하는 인물로, '여인 2'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여인 2'가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라고 다짐하자 '여인 1'은 '돌이야 쿠니와 구준비나 되쇼셔'라며 조언을 하고 있다.
 ② '여인 2'는 '여인 1'에게 '미친 일이 이셔이다'라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③ '여인 2'는 '설워 플터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여인 1'이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다'야 니별(離別)하고 /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노고'라며 '여인 2'에게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어보고 있다.

- 03 '미친 일'은 '여인 2'의 마음속의 맺힌 일을 하소연하려는 것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 임을 걱정하는 마음 등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의하면 임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미친 일'이, 임금에 대한 원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 04 '속미인곡'은 임금을 '임'으로 보고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화자가 임금을 생각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더 애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

- 05 '낙월'은 지는 달로 금방 사라지는 것이며, 소극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구준비'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직접 임을 적시며 곁에 있을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 같이 조언한 것에는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를 썼다.	☐
'여인 1'이 조언한 이유를 썼다.	☐

- 06 <보기>에서 화자는 차라리 죽어져서 '뱀나비'가 되어 자신의 향을 임의 옷에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가의 화자인 '여인 2'도 죽어져서 '낙월'이 되어 임 계신 창안을 비추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와 이 시가의 화자 모두 죽어서라도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와 이 시가에서는 임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드러나지 않으며, 재회의 언약을 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없다.
 ② '달', '비', '뱀나비' 등과 같은 자연물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일 뿐, 이에 대한 화자의 예찬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임과 이별하였지만,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죽어서라도 임과 다시 만나고자 한다.
 ⑤ 임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07 화자는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에서 만나고 있다. 꿈은 임과 '여인 2'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화자는 꿈에서 임을 만나기는 하지만, 임과의 사랑을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꿈' 속 공간에서 현실의 모습이나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 ④ '계성'으로 인해 화자는 잠에서 깨며 꿈도 끝나고 만다. 따라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임과 온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꿈'에 임을 만났으나 눈물이 바로 나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화자는 임에게 원망의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

08 ①의 '헤다'는 '헤아리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이다.

09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유사하게 구성하는 수미상관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 (나)는 모두 경치를 먼저 묘사한 후에 정서를 표출하는 선경 후정(先景後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에서는 '영변에 약산' 같은 구체적 지명을 활용해 향토적 정서를 환기한다.
- ⑤ (나)에서는 '겨울', '사랑' 같은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대조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선경 후정(先景後情)

한시에서 주로 쓰이는 창작 기법으로, 시상을 전개할 때 먼저 자연이나 사물 등 경치(외적 상황)를 그대로 묘사하고, 이후 화자의 감정이나 생각(내면 심리, 정서)을 표출하는 것이다.

10 (가)와 (나)는 모두 임(당신)과의 이별의 슬픔을 임(당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견뎌 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다른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슬픔을 극복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가)와 (나) 모두 임과 함께 해야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와 (나) 모두 임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련이나 슬픔을 느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⑤ (가)는 인고의 자세로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 있을 뿐, 언젠가 임과 만나 사랑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는 시련을 참고 기다려 사랑을 이루려는 자세가 나타난다.

11 ㉠은 화자의 분신이자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또한 임에 대한 헌신과 순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달래꽃'이 화자가 임과 이별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12 ㉠에는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죽어도 눈물 안 흘리우리다'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와 같이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한 도치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별의 슬픔을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극복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면적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슬퍼도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견디겠다는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정서가 드러난다.

참고 자료

도치법

말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의 순서에 변화를 줌으로써 작가가 나타내는 바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가자, 나를 부르는 고향으로."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13 (가)와 (나)에는 이별한 상황을 노래하는 화자가 드러난다. (가)와 (나)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이별한 상황에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는 재회를 확신하고 있지 않다.
- ② (가)와 (나)의 화자는 임에게 순종적인 화자로 볼 수 있으며, 임의 뜻에 따르고 있으므로 이별을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임을 붙잡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와 (나)의 화자는 이별한 상황에서도 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 화자가 어쩔 수 없이 임을 잊으려고 노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가)에서 '낙월(지는달)'은 멀리서 임을 바라보고 비추는 화자의 분신이며, (나)에서 임이 가시는 길에 뿌려드리겠다는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을 의미한다. (나)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떠나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고, 임에게 이를 밟고 가라고 하는데, 화자는 이를 통해 임을 향한 사랑과 헌신, 희생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낙월'과 '진달래꽃'이 시적 화자의 분신(사랑)이라는 공통점을 썼다.	☐

15 ㉠에는 '구름', '안개', ㉡에는 '벼람', '물결'로 인하여 임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에는 '오든된 계성'으로 인해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화자의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즉 ㉠~㉢에서는 화자와 임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물로 인해 화자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은 장애물이 아니며,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올라간 공간이다. 화자는 ㉠에서 '구름', '안개'와 같은 장애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 ㉡으로 이동하였지만 ㉢에도 장애물은 존재한다.
- ② ㉠에 빈 배가 걸려 있지만 사공이 돌아온다고 임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다.
- ③ ㉢에서 잠이 든 화자는 꿈속에서 어렵게 임을 만나지만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
- ④ 화자가 잠이 든 것은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산과 물가를 헤매다 힘이 다했기 때문이며 ㉠과 ㉢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03 춘향전

스스로 계획하기

112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113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115쪽

1 ① 2 윤봉 영장 3 ④

1 이 글에서 '어사또'가 된 '몽룡'은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라는 말을 하며 '본관 사또'를 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몽룡'의 이 말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2 '윤봉 영장'은 걸인 행세를 하고 찾아간 '몽룡'을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라고 하며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몽룡'이 잔치에 참석하면서 앞으로의 사건이 전개된다.

3 ㉠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으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상반된 '본관 사또'의 화려한 잔치를 본 '어사또'의 마음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암행어사 역할 수행에 대한 '어사또'의 부담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확인 문제 +

117쪽

1 ④ 2 만성고

1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가이다. '몽룡'이 지은 한시는 작가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인 '몽룡'이 읊은 것으로 대구법과 은유법이 사용되었으며, 백성을 돌보지 않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또한 앞으로 어사출두라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A]는 '몽룡'이 지은 한시로, 이 한시에서는 백성의 힘겨움을 드러내는 소재로 일만 백성의 피를 의미하는 '천인혈(千人血)'과 '일만 백성의 기름을 의미하는 '만성고(萬姓膏)'가 사용되었다. 이 중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를 의미하는 '옥반가효(玉盤佳肴)'와 대응되는 것은 '만성고(萬姓膏)'이다.

확인 문제 +

119쪽

1 ⑤ 2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3 ⑤

1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장면의 극대화'가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장면의 극대화'는 특정 장면을 서술자가 반복하고 부연하여 장면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가)와 (나)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 서술자가 반복하며 장면을 극대화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는 지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본관 사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②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라는 구절에서 암행어사의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부패한 아전들이 도망치는 모습에서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허둥대는 수령들의 모습을 실감 나게 묘사하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하고 있다.

2 언어유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를 사용한 부분은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가 있다. 이러한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어사의 출두에 당황한 '본관 사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이 소설에는 당대의 사회의 여러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은 부패한 관리로 학정을 일삼는 '본관 사또'가 파면되는 장면으로 이를 통해 당시에는 부패한 관리를 감찰하는 암행어사라는 벼슬이 있었으며,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를 징벌하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문제 +

121쪽

1 ⑤ 2 ② 3 ④

1 [A]는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의 말에 대한 '춘향'의 대답으로 반어법, 비유법, 대구법, 설의법 등을 통해 벼슬아치의 탄압을 비판하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청자를 설정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몽룡'은 '춘향'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수청을 들라며 '춘향'을 시험하고 있다.

3 (라)는 암행어사가 된 '몽룡'과 '춘향'이 재회하는 장면으로 이 작품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춘향'을 모른 척하며 수청을 요구했던 '어사또'와 이를 거부하던 '춘향'과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하라"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이 제시되었다.

③ '춘향'이 '몽룡'의 정체를 처음 알게 된 부분으로 사건이 반전된다.

⑤ '이화춘풍은 봄바람이라는 뜻으로 이몽룡을 의미하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를 바탕으로 '몽룡'을 만난 '춘향'의 기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 ④ 2 ③ 3 ④

1 (가)와 (나)를 보면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의 아들인 '몽룡'이 결혼하여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이 글의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2 [A]는 '춘향'이 '몽룡'과 함께 서울로 가기로 한 후, 고향을 떠나면서 읊은 시이다. '춘향'은 이 시에서 고향에 다시 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3 (나)는 이 작품의 결말로 '춘향'과 '몽룡'이 결혼하여 백년동락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 어사또가 민정을 살핀 후에 임금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어사의 하루 일과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신분제를 벗어나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는 당대 백성들의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

② '몽룡'이 영의정까지 지내고 퇴임하고, '춘향'과 삼남삼녀를 낳았으며, 삼남삼녀 모두 총명하여 일품 관직이 대대로 전해진다는 여생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의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으며 이 작품 역시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다.

⑤ 지조를 지킨 '춘향'을 임금이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는 칭호인 '정렬부인'으로 봉한다는 것에서 여인의 지조를 중시하는 당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어휘력 UP

134~135쪽

1 (1) ㉠ (2) ㉡ (3) ㉢

2 (1) 가없이 (2) 분부 (3) 필연 (4) 풍자

3 (1) ㉡ (2) ㉢ (3) ㉠ (4) ㉣

4 ④

5 죽은 목숨

6 ⑤

1 (1) '청송녹죽(靑松綠竹)'은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라는 뜻이다.

(2) '위의'는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라는 뜻이다.

(3) '영귀하다'는 '지체가 높고 귀하다.'라는 뜻이다.

2 (1) '가없이'는 '끝이 없이.', '말없이'는 '아무런 말도 아니하고.'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가없이'가 적절하다.

(2) '분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림. 또는 그 명령이나 지시.', '안부'는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또는 인사로 그것을 전하거나 묻는 일.'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분부'가 적절하다.

(3) '필연'은 '벗과 버루를 아울러 이르는 말.', '필답'은 '말이 통하지 아니하거나 말을 할 수 없을 때에, 글로 써서 서로 묻고 대답

함.'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필연'이 적절하다.

(4) '풍자'는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 '풍미'는 '음식의 고상한 맛.'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풍자'가 적절하다.

3 (1) '민정'은 '백성들의 사정과 생활 형편.'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2) '말석'은 '좌석의 차례에서 맨 끝 자리.'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3) '전승'은 '문화, 풍속,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 계승함. 또는 그것을 물려주어 잇게 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연민'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④에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라는 뜻을 지닌 '의젓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죽은 목숨'은 '살길이 막연하여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깜빡 죽다'는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구슬려 살다'는 '그럴듯한 말로 남을 자꾸 꺾어 잘 따르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⑤에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수주대토(守株待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136~139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⑤ 07 ⑤

08 ④ 09 ⑤ 10 ② 11 ⑤ 12 충암절벽, 청송녹죽의 원

관념은 변하지 않는 '춘향'의 지조와 절개이고, 바람, 눈의 원관념은 시련으로, 시련에도 절개를 결코 굽히지 않겠다는 '춘향'의 의지를 드러낸다.

01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전라도 남원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남원의 관청에서 '본관 사또'의 호화로운 생일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저 사령의 거동 보소'와 같은 판소리 사설체의 문체가 드러난다.

③ '어사또'는 부패한 관리인 '본관 사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한시를 읊고 있다.

④ 선인인 '춘향', '몽룡', 악인인 '본관 사또'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⑤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어찌 아니 명관인가.'와 같이 편집자적 논평이 제시된다.

02 <보기>는 임금이나 관리가 평민 여자를 빼앗는 내용의 설화인 판탈 민녀 설화 중의 하나이다. 이 글과 <보기>에는 모두 권력자가 힘없는 백성을 핍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몽룡'이 조력자로 춘향을 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는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이유로 '춘향'이 옥에 갇히지만, <보기>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 글에는 효심이 지극한 '춘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보기>에는 도리를 극진히 하였다는 점에서 '지리산녀'가 효를 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이 글은 '춘향'이 '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이유가 '몽룡'에 대한 절개와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기>는 다른 남자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

03 [A]는 언어유희가 드러난 부분으로, 음식의 하나인 '갈비'를 말하기 위해 사람의 뼈의 일부인 '갈비'에 연결하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언어유희가 드러난다.

04 [B]는 '몽룡'이 '운봉 영장'이 운자로 내어 준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를 모두 사용하여 탐관오리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지은 한시이다.

05 ㉠의 '본관 사또'는 걸인 행세를 한 '몽룡'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어리석게도 파악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춘향'을 찾고 있다. 하지만 '운봉 영장'은 '몽룡'이 지은 한시를 보고 바로 암행어사임을 알고 주변을 단속하고 있다.

06 ㉡는 '어사또'의 한시를 들은 '운봉 영장'이 '어사또'가 암행어사임을 눈치 챌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본관 사또'의 기분이 상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백성들은 살기 힘든데 요란하게 생일잔치를 하는 모습을 본 '어사또'의 언짢은 심정을 보여 주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② '본관 사또'가 명관이 아니라는 서술자의 의도를 말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다.
 ③ '운봉 영장' 때문에 걸인을 생일잔치에 참석하게 한 것에 대한 못마땅한 '본관 사또'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본관 사또'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앞으로의 일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07 이 글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담겨 있다. 부패한 관리이자 징벌의 대상인 '본관 사또'가 등장하긴 하지만 양반들이 가문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나랏돈을 뺏돌리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 오답 풀이** ①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의 아들인 '몽룡'이 혼인을 하는 것에서 당시 조선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③ 부패한 관리인 '본관 사또'를 징벌하는 데에서 당시 부패한 지배층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리를 감찰하는 암행어사라는 벼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몽룡'에 대한 지조와 정절을 지킨 '춘향'에게 임금인 '정렬부인'의 칭

호를 내리는 데에서 여인의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8 이 작품은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해석할 수 있다. <보기>에는 부패한 지배층인 '변 사또'의 횡포가 드러나고, 결국 벌을 받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할 때, 이 작품의 주제는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⑤ 기생의 딸 '춘향'과 양반의 아들 '몽룡'과의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 지고지순한 사랑을 통해 당대 민중들이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 것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에서 여인의 정절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유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하지만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09 [A]에서는 암행어사 출두에 혼비백산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하며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거문고가 부서지는 소리로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인제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복과 장고라.' 등에서 열거와 대구가 드러나서 운율감이 느껴진다.
 ② '명석 구멍 새양쥐 눈 뜨듯'이라는 관용 표현을 통해 '본관 사또'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보여 주고 있다.
 ③ '본관 사또'가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10 [B]에서는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춘향'의 아쉬움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부용당', '영주각' 등을 의인화하며 말을 건네고 있다.
 ③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당나라 시인 왕유의 한시 구절을 인용하여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④ 해마다 푸른 '봄풀'과 돌아오지 않는 '떠난 객'을 언급하며 돌아올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부용당', '광한루 오작교', '영주각' 등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이별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11 ㉡는 '몽룡'이 '어사또'임을 알고 '춘향'이 기뻐하는 부분으로, 자신을 시험한 '어사또'에 대한 원망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12 '춘향'은 ㉢에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충암절벽, 청송녹죽'에, 부패한 관리들로 인한 시련을 '바람, 눈'에 비유하여 지조와 절개를 결코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소재의 원관념을 올바르게 썼다.	☐
표현의 의도를 '춘향'의 의지와 관련지어 썼다.	☐

01 (가)의 화자는 삶의 비애를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가)의 '밤'과 (나)의 '밤'은 모두 화자의 고독과 외로움을 심화하는 시어이다. 02 ① 03 ② 04 ③ 05 ② 06 ④ 07 ① 08 ⑤ 09 ④ 10 ③ 11 ② 12 ③ 13 ① 14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태도를 드러냄.

01 (가)의 화자는 삶의 비애를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밤'은 모두 화자의 고독과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시어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와 (나)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였다.	☐
(가)와 (나)에 사용된 '밤'이라는 시어의 공통적 의미를 썼다.	☐

02 (가)는 고려 가요로 3음보, (나)는 가사로 4음보, (다)는 시조로 4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시가는 보통 고려 시대에는 3음보 율격을, 조선 시대에는 4음보 율격을 사용하였다.

03 (가)의 '청산'은 삶의 애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이다. 그러므로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가 평생 즐기고 싶은 풍류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새'는 울고 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근심이 많은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낙월'은 화자가 죽어서 되려는 화자의 분신이므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다)의 '달'과 '청풍'은 화자가 함께하고 싶은 자연으로 친화의 대상, 풍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다)의 '강산'은 화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싶은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4 <보기>처럼 '가던 새'를 '갈던 밭이랑', '잉 무든 장글란'을 '이끼 문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한다면, 이와 관련 있는 농민이 화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농기인 쟁기에 이끼가 묻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유랑민이 화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05 (가)의 ㉠ '바다'는 삶의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곳이고, (나)의 ㉡ '물가'는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화자가 찾아간 곳이다.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화자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과 ㉡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③ ㉠과 ㉡ 모두 정신적 수양을 완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은 삶의 비애를 잊고 싶어 찾는 도피처이기는 하지만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 또한 임의 소식을 알

기 위해 찾아간 곳으로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⑤ ㉠은 화자가 힘겨운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선택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은 아니다.

06 화자는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을 사랑하는 마음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꿈속에서 임을 본 후 '옥(玉) 7톤 열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라고 하며 임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임의安危를 염려해 왔음을 알 수 있다.
 ② '무덤의 머근 말삼 슬궤장 슬자 후니'를 통해 화자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임과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여 꿈에서 임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끼똥던고'를 통해 새벽닭 소리로 인해 꿈에서 임을 잠깐 만나게 되어 이에 대한 아쉬움이 원망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07 (가)에서는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 "다리로 잡수시오."에서, (나)에서는 '뽕어낸벤또(베토벤)라나 뽕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러서 허구, 차에코폴구 싫어(차이콥스키)라나 뽕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러서 허구'에서 언어유희를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가)와 (나) 모두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 시점을 오가며 사건을 서술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초현실적인 사건을 소재로 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짧은 진술로 빠른 전개로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8 '나'는 1인칭 관찰자로 주동 인물인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총수'와 '그'의 갈등을 보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본관 사또'는 '어사또'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걸인이라고 홀대하고 있다.
 ② '운봉 영장'은 '어사또'를 말석에 앉히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③ '어사또'는 한시를 통해 '술'과 '백성의 피'를 비교하여 '본관 사또'의 학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④ '그'는 비싼 '비단잉어'를 소중히 여기는 '총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09 ㉠은 차레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 모습을 표현한 장면이다.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지 않는다.

10 (가)에는 서술자가 한시를 풀이해 주는 부분이 드러난다. 이는 한자를 잘 알지 못하는 서민을 배려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문자에 맞추어 한시를 짓는 것은 양반의 언어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서민을 배려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대화를 통한 사건의 전개는 서민을 배려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녹색 옷 붉은 치마'에서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지만 이는 서민을 배려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⑤ 푸짐한 수령들의 상과 초라한 '어사또'의 상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만 이는 서민을 배려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11 '유재필'은 비싼 비단잉어를 애지중지하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총수'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단잉어를 잃은 '총수'의 슬픔에 공감하며 배려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그'는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의 비단잉어를 즐기려는 뜨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③ '그'는 '나'와의 대화에서 언어유희적 표현을 사용하고 '총수'와의 대화에서는 능청스러운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희극적인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비단잉어를 중시하는 '총수'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비단잉어가 죽은 이유에 대해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총수' 즉,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가)는 '낙월' 등을 통해, (나)는 '진달래꽃'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과 입에 대한 사랑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3 ㉠에 비해 ㉡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은 맞지만 입을 더 축복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신의 사랑과 슬픔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고 지속적으로 입에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14 (나)의 3연에서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떠나는 입에 대해 자기희생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3연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올바르게 썼다.	☐
다른 연의 정리된 내용과 서술 형태를 맞추어 썼다.	☐

대단원 평가 ②

147~151쪽

-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③ **06** ① **07** ④
08 ③ **09** 입은 선조, 화자는 정철을 가리킨다. 정철은 탄핵을 받아 낙향했지만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작품을 창작했다. **10** ④ **11** ① **12** ③
13 ⑤ **14** 바람, 눈, 자신의 변함없는 절개에 대해 말하고자 하고 있다. **15** ④

01 (나)의 화자가 '진달래꽃'을 뿌리는 것은 비록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입이지만 입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달래꽃'을 뿌리는 것은 입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지만, 입과 재회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가던 새'를 보는 화자의 행동은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의 화자를 실연한 여인으로 본다면 '가던 새'는 '이별한 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청산'과 '바다'는 화자가 고된 현실을 벗어나 가고 싶어 하는 이상향이다. 그러므로, (가)의 화자를 실연한 여인으로 본다면 '청산'과 '바다'는 이별의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를 실연한 여인으로 본다면, '잉 무든 장글란'을 '이끼 문은 은장도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다.'에는 입이 떠나는 것에 대해 체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02 (가)에는 각 연의 마지막에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라는 후렴구가 사용되어 있다. 이 후렴구는 특정한 의미가 없고 음악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주제가 함축된 시구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03 (나)의 ㉠은 반어적 표현으로 겉으로는 슬퍼도 슬퍼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입이 제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4 '허장성세(虛張聲勢)'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이라는 뜻이다. (다)에서 화자는 바쁜 농촌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있으므로 (다)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할.'이라는 뜻으로 꿈에서도 입을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과 관련된다.
 ② '동분서주(東奔西走)'는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입의 소식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과 관련된다.
 ③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입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어서 높은 산에 올랐는데 '구름'에 '안개'까지 낀 상황과 관련된다.
 ④ '안분지족(安分知足)'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알.'이라는 뜻으로, 초려 삼간을 짓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과 관련된다.

05 (가)는 가사 작품으로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나)와 (다)는 시조 작품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 (나)는 사대부가, (다)는 바쁜 농촌 생활이 나타나 있으므로 평민이 창작한 것이다.
 ② (가)~(다) 모두 형식적으로는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을 구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가)~(다)는 모두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⑤ (가)~(다)는 모두 조선 시대의 시가 문학 작품이다.

06 (가)의 '산천'은 어두운 공간으로 임의 소식을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는 답답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속세에서 벗어난 화자가 자연과 하나 된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② '부림'과 '물결'은 임과 화자의 사랑을 가로막는 인간 세상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낙월'과 '구존비'는 자연이 아니라 화자의 분신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강산'은 화자가 함께하고 싶은 것으로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무림 산중'은 실제 노동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07 (나)의 시조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업에 정진한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08 <보기>는 굴원의 「이소」 중의 일부분이다. <보기>에서 화자는 다른 이의 모함만 듣고 자신을 버린 임금을 원망하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와 <보기> 모두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임의 마음이 변한 것이 자신의 탓, 운명의 탓이라고 말하는 반면, (나)에서는 임의 잦은 변덕을 지적하고 있다.
 ② (가)와 <보기>는 모두 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보기>는 대화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가)는 '여인 1'과 '여인 2'의 대화체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보기>는 이별이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가)에서는 죽어서 '낙월'이 되어 임과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굴원, 「이소」

'굴원'은 중국 전국 시대 '초(楚) 나라'의 정치가로,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무리들에게 모함을 당해 '초(楚) 나라'의 '회왕'에게 쫓겨난다. 「이소」는 '굴원'이 유배 생활을 하며 지은 시이다.

갈래	한시(漢詩)
성격	서정적
제재	임에 대한 원망
주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憂國衷情)과 간신배들에 대한 비분강개(悲憤慷慨)한 심정

0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해석하면 '임'은 선조, 화자는 '정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정철은 탄핵을 받아 벼슬을 잃고 낙향했지만 임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 등장하는 임과 화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올바르게 밝혀 썼다.	☐
이 작품을 지은 의도를 <보기>의 상황에 맞게 썼다.	☐

10 '어사또'가 '춘향'에게 죄를 묻은 것은 '춘향'을 알아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11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의 아들인 '몽룡'이 혼인했다는 것에서 당시 조선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이 글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작품을 해석할 때는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들어 자신의 해석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한다. 이 글의 결말인 (다) 부분에서 '어사또'가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는 부분이 제시되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춘향'과 '몽룡'의 행복한 여생을 그리는 결말 부분에 잠시 제시되었을 뿐이며, 임금을 만나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이 작품 전체의 주제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3 (가)에는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와 같이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는 드러나지만,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는 사용되지 않았다.

14 <보기>에서 흰 눈을 뜻하는 '백설'은 홀로 푸르름을 뜻하는 '독야청청'의 장애물이므로 ㉠에서 시련을 의미하는 '바람', '눈'과 소재의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 <보기>는 자신의 변함없는 절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밑줄 친 '백설'과 유사한 소재를 찾아 썼다.	☐
㉠과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썼다.	☐

참고 자료

성삼문, 「이 몸이 주거 가셔~」

•현대어 풀이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홀로 푸르리라.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의지적
제재	낙락장송(落落長松)
주제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개
특징	비유와 상징을 이용하여 주제를 드러냄.

15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는 '변 사또'의 확정으로 '춘향'이 죽을 뻔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화춘풍'은 '봄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는 '춘향'이 '몽룡'으로 인해 살아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몽룡'의 성과 같은 '이(李)'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몽룡'을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3 생각하고 표현하는 우리

01 영화 「업(UP)」 비평문

스스로 계획하기

156쪽

1 ○ 2 × 3 ○

마리 알고 가기

157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159쪽

1 ④ 2 인물, 배경

1 이 글은 영화 「업」을 보고 난 후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를 비평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필자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처음 부분에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끝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영화에 대한 필자의 '애니메이션 본유의 영역에 충실한 작품'이라는 평가와 그 근거를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③ 처음 부분에서 질문 형태의 문장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⑤ 인물이나 배경을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캐릭터 디자인이나 배경 등에 주목하며 작품을 비평하고 있다.

참고 자료

매체 비평 자료의 비판적 수용

공정성	필자가 공정한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비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함.
타당성	필자가 비평한 내용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봐야 함.

2 이 글에서는 영화에서 인물이나 배경을 형상화한 방법을 비평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캐릭터를 삼등신에 가깝게 머리를 크게 그림으로써 만화적이고 정감 어린 인물의 느낌을 강조하고, 각진 외모의 '칼'과 둥그스름한 외모의 '러셀'을 대비시켜 작품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있다고 비평하였다. 또한 배경을 정교한 표현으로 생생하게 살리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확인 문제 +

161쪽

1 ④ 2 <, > 3 ①

1 필자는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등실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의 이미지에 영화 「업」의 주제가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라는 영화가 그려 내려는 세계를 선명하게 시각화한다고 보았다.

- 오답 풀이 ① 필자는 이 글의 '가운데 - 마'에서 '칼'이 '엘리'의 공책을 넘기다가 '엘리'가 쓴 '모험을 하게 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의 새로운 모험을 해 봐요.'라는 메모를 발견하는 장면을 인상적인 대목으로 꼽았지만 이 장면이 주제를 함축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안락의자에 앉은 '칼'이 '엘리'가 쓴 문장을 발견하는 것을 꼽았으나, 필자는 이 장면이 주제를 함축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③ 필자는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의 이미지에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소망이 풍선의 도움으로 날개를 펴고, 낡은 집에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낡은 집 자체가 주제를 함축한 이미지는 아니다.
 ⑤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극의 초반부의 '칼'이 아내 '엘리'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파란 풍선을 들고 귀가하는 장면을 들었으나, 이 장면이 필자가 생각하는 주제를 함축한 이미지는 아니다.

2 필자는 극 초반부와 후반부의 두 차례의 장면을 가장 인상적인 대목으로 꼽고 있다. 필자가 꼽은 장면은 '칼'과 '엘리'가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부터 '엘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칼'이 홀로 파란 풍선을 들고 귀가하는 순간을 압축한 영화의 초반부 장면, 안락의자에 앉은 '칼'이 공책을 넘기다가 맨 뒷장에서 '엘리'가 쓴 문장을 발견하는 영화의 후반부 장면이다.

- 오답 풀이 ㄱ. '엘리'는 영화 초반부에만 등장하며, '칼'과 함께 파라다이스 폭포로 가려던 꿈을 꾸었지만 세상을 떠나면서 그 꿈은 '칼'이 혼자 이루게 된다. 따라서 '엘리'가 파라다이스 폭포에 도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ㄴ. 괴팍한 노인 '칼'과 호기심 많은 소년 '러셀'이 만나 여정을 떠나는 내용이 영화 「업」의 주된 내용이지는 하나, 전체적인 줄거리 중 하나로 언급하였을 뿐 필자가 인상적인 대목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3 필자는 빨간 풍선을 받고 있고 있던 어린 날의 꿈을 떠올렸다. 필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리며 영화가 필자에게 이 영화가 주는 가치를 떠올리고 있다.

어휘력 UP

169쪽

- 1 (1) ㉠ (2) ㉡ (3) ㉢
 2 (1) 본유 (2) 시종 (3) 고양 (4) 정화
 3 (1) ㉠ (2) ㉡ (3) ㉢ (4) ㉣

- 1 (1) '미지'는 '아직 알지 못함.'이라는 뜻이다.
 (2) '상기되다'는 '지난 일이 돌이켜져 생각나다.'라는 뜻이다.
 (3) '체현하다'는 '사상이나 관념 따위의 정신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나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실현하다.'라는 뜻이다.

- 2 (1) '본유'는 '본디부터 있음.'이라는 뜻으로 정이 우리 민족에게 본디부터 있었던 특징이라는 의미에서 적절하다. 반면 '본격'은 '근본에 맞는 올바른 격식이나 규격.'이라는 뜻이다.
- (2) '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듣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적절하다. 반면 '일시'는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다.
- (3) '고양'은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복돋워서 높임.'이라는 뜻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팀의 사기를 복돋워 높였다는 의미에서 '고양'이 사용되었다. 반면 '함양'은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추.'이라는 뜻이다.
- (4) '정화'는 '작품을 봄으로써 마음에 쌓여 있던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 따위가 해소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을 말한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마음속의 혼란스러움을 해소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이므로 이 문장에 적절하다. '교란'은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이라는 뜻이다.

- 3 (1) 노력을 통해 그의 실력이 몇 배로 늘어났다는 의미이므로 '배'가 들어가야 한다.
- (2) 며칠 전에 보았던 저녁노을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므로 '잔상'이 들어가야 한다.
- (3) 가난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그의 말이 모순을 일으키는 하나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 말이므로 '역설'이 들어가야 한다.
- (4) 요리 과정이 그림의 형태로 나타나 보여 한눈에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시각화'가 들어가야 한다.

소단원 평가

170~171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노인과 소년이 말하는 개와 희귀 새를 만나 신비의 폭포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기분 좋은 웃음을 잃지 않아 관객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

- 01 이 글은 매체 비평문으로, 매체 자료에 대한 분석하거나 평가하여 자신만의 관점과 주장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의 생각을 비평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태도나 판단, 입장 등 필자의 개성적인 관점이 비평문에 포함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매체 비평문의 경우, 매체 자료에서 활용된 표현 방법이 어떤 효과와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매체 비평문에서는 매체 자료의 주제와, 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매체 자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 ④ 모든 매체 자료에는 이를 제작한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에, 비평문은 제작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⑤ 매체 자료에는 외부의 현실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해석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비평문의 구조

화제, 논평, 근거 및 반응으로 정리할 수 있다.

화제	대상 텍스트에 대한 요약과 분석이 포함되어 비평문의 관점에 따라 요약과 분석이 반복될 수 있음.
논평	대상 텍스트에 대하여 부정, 긍정, 유보와 같은 필자의 관점과 태도, 판단, 입장 등을 밝히는 부분임. 이 부분에서 비평문의 주관적 색채, 필자의 개성적인 관점 등이 드러남.
근거 및 반응	필자가 내린 논평의 근거를 밝히거나 정서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부분임. 이를 통해서 필자가 내린 논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텍스트와 관련된 정서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

- 02 <보기>는 매체 자료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 수용자에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였다. 이 글과 <보기>에 의하면 거대한 희귀 새를 등장시킨 이유는 흥미를 끄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관객을 집중하게 하고, 애니메이션의 재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칼'의 아내 '엘리'의 테마 음악을 반복하여 여정에 동행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② 안락의자에 앉은 '칼'이 공책을 넘기다가 맨 뒷장에서 '엘리'가 쓴 문장을 발견하는 영화의 후반부 장면은 관객이 '칼'의 입장에 이입하여 공책 속 문구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③ 초반부 4분가량의 장면에서 대사를 넣지 않음으로써 '엘리'가 떠나고 혼자 남게 되는 '칼'의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괴팍한 성격의 '칼'은 각진 얼굴로, 호기심 많은 성격의 '러셀'은 둥그스름하게 표현해 두 인물의 성격을 전달하고 외모를 대비하여 흥미를 배가한다.

- 03 매체 비평문은 매체 자료를 홍보하고 제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 자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매체 자료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설득력 있고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글이다.

오답 풀이 ② 매체 비평문을 쓰는 것은 매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근거를 들어 평가하여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는 행위이다.

③ 수용자들은 매체 비평문을 읽음으로써 매체 자료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수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④ 매체 비평문은 매체 자료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자들이 수용할지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⑤ <보기>에서 비평문은 비평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였다.

- 04 초반부 인상적인 대목의 경우 '칼'과 '엘리'가 결혼한 순간부터 늙은 남편이 홀로 귀가하는 순간까지를 대사 없이 압축하여 제시함으로써 쓸쓸한 잔상을 남기고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후반부 인상적인 대목의 경우, '엘리'가 쓴 문장을 통해 감동과 용기를 느낄 수 있으며 감정을 정화하기에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오답 풀이** ① 필자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상적인 장면을 언급하며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낸다.
- ② (사)에서 필자는 개인적 경험과 연결하여 영화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제시하였다.
- ③ (다)에서 '칼'과 '러셀'의 캐릭터 디자인을 대비시킴으로써 영화의 흥미를 배가한다고 하였다.
- ⑤ (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은 목조 이층집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05 (바)에서 필자는 영화가 시종 유쾌하다고 표현하였으나 '하지만'을 통해 분위기가 반전되며, 필자에게 아름다움과 쓸쓸함, 감동과 용기를 주는 장면으로 초반부와 후반부의 장면을 예로 들었다.

- 오답 풀이** ① ㉠ 캐릭터 디자인을 삼등신에 가깝게 머리를 크게 그림으로써 정감 어린 인물의 느낌을 강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② ㉡ 서정적이고 내향적인 음악이 칼의 아내 '엘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③ ㉢ 풍선을 달고 떠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⑤ ㉤ 필자는 영화 시사회에서 빨간 풍선을 받고 자신의 어린 날 꿈을 생생히 떠올렸다고 하며 '꿈'이라는 영화의 주제와 연관된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06 필자는 '애니메이션 「업」은 꿈과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 본유의 영역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노인인과 소년이 말하는 개와 거대한 희귀 새를 만나 신비의 폭포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기분 좋은 웃음을 시종 잃지 않아 관객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서 근거를 찾아 썼다.	☐
'~때문이다.' 형태의 한 문장으로 썼다.	☐

02 복합양식으로 짜인 글과 자료

스스로 계획하기

172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173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184쪽

1 ② **2** ③ **3** '크라우드 펀딩'의 예시를 이미지로 제시하여 해당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

1 필자는 (가)에서 '퍼네이션'을 언급하며 '무겁게 느껴지던 기부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가 최근 등장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필자는 (가)에서 '퍼네이션'을 의미와 재미를 잡은 새로운 기부 문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필자는 (나)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설명하며 적은 금액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필자는 쉽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고액 기부를 선호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필자는 (나)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적합한 점수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필자는 이 글에서 '퍼네이션', '크라우드 펀딩' 등의 다양한 기부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독자들도 기부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기부 방식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부 문화를 소개하고 있을 뿐 기부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 ② 매체와 플랫폼을 활용한 다채롭고 재미있는 기부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였지, 매체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 ④ 새로운 형태의 기부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기부 단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⑤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에서 익명의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받는 것이라고 언급되기는 했으나 기부 단체에 익명의 기부자들이 기부하는 현상이 증가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 이 글은 복합양식으로 짜인 글이다. (나)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예시 이미지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기부 목표치가 있고, 익명의 기부자들이 기부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부 방식이라는 것을 예시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시하여 새로운 기부 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어휘력 UP

186~187쪽

- 1** (1) ㉠ (2) ㉡ (3) ㉢
- 2** (1) 도달 (2) 의향 (3) 편파적 (4) 직관적
- 3** (1) ㉠ (2) ㉢ (3) ㉤ (4) ㉡
- 4** ㉣
- 5** 바닥을 기다
- 6** ㉢

- 1** (1) '이례적'은 '보통 있는 일에서 벗어나 특이한 것.'이라는 뜻이다.
 (2) '타당하다'는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이다.
 (3) '거창하다'는 '일의 규모나 형태가 매우 크고 넓다.'라는 뜻이다.

- 2 (1) '도달'은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이라는 의미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는 문장에 적절하다.
- (2) '의향'은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하려는 생각(집을 파는 것)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적절하다. '의중'은 '마음의 속.'이라는 의미이다.
- (3) 심판의 치우친 판정에 항의했다는 의미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라는 뜻의 '편파적'이 적절하다. '평화적'은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것.'을 말한다.
- (4) 사용자가 편안함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의미에서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뜻의 '직관적'이 적절하다. '직설적'은 '바른대로 말하는 것.'을 말한다.

- 3 (1) 구급 대원의 대처로 피해가 없었다는 문장에 들어갈 어휘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의 '인명(人命)'이다.
- (2) 하천에 폐수를 버렸다는 의미이므로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 내다.'라는 뜻의 '배출'이 들어가야 한다.
- (3) 신종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이므로 '흩어져 널리 퍼짐.'이라는 뜻의 '확산'이 들어가야 한다.
- (4) 역사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이 부족하면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이라는 뜻의 '인식'이 들어가야 한다.

- 4 ④에는 '몸을 숨김.'이라는 의미를 지닌 '은신'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⑤에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이라는 의미의 '은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5 '바닥을 기다'는 '정도나 수준이 형편없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성적이 저조하고 형편없다는 내용과 뜻이 통한다. '간이 녹다'는 '무엇이 마음에 들어 정도 이상으로 호뭇함을 느끼다.', '몹시 애타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이다. '눈이 낮다'는 '보는 수준이 높지 아니하다.'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 6 '불편부당(不偏不黨)'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이라는 뜻으로 공평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③의 판사는 어떤 사건일지라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편부당'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불편부당'과 유사한 한자 성어로는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이라는 의미의 '공명정대(公明正大)'가 있다.

- 오답 풀이** ①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백미(白眉)'가 어울린다.
- ②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함'을 뜻하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 어울린다.
- ④ '강물이 빨리 흘러 천 리를 간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일사천리(一瀉千里)'가 어울린다.
- ⑤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188~189쪽

- 01 ② 02 ④ 03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에 대해서 필자는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4 ③ 05 ④ 06 ③

- 01 (가)와 (나)는 복합양식으로 짜인 글로 (가)에서는 세계 기부 지수를 막대그래프로, (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경험 및 기부 의향을 꺾은선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은 글의 내용과 복합양식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러한 글의 표현 방식을 평가할 때는 독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적절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복합양식으로 짜인 글에 담긴 필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해당 관점이나 의도가 타당한지 평가해야 한다.
- ③ 복합양식으로 짜인 글에 사용된 자료들은 글의 신뢰성, 타당성을 위해 최신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자료에 최신 내용이 담겨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 ④ 복합양식으로 짜인 글에 담긴 필자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면 올바른 내용을 전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필자의 관점이 공정한지, 정보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평가해야 한다.
- ⑤ 복합양식으로 짜인 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따질 때는 활용된 다양한 자료들의 출처를 살펴야 한다. 글에 활용된 다양한 자료들의 출처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자료의 내용도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기에 이러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 02 (가)의 막대그래프는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이 아니라 영국 자선 지원 재단에서 세계 기부 지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이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은 통계청 사회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서 언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시각 자료로 (가)에서는 막대그래프를, (나)에서는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가)와 (나)의 자료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이라는 주제의 글에 활용하면 세계 기부 지수 순위에서의 우리나라의 순위와 통계청의 사회 조사를 통한 기부 참여율 수치를 사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가)의 자료를 통해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나)의 자료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중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바탕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을 독려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나)의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경험 및 기부 의향'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다.

- 03 (가)에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기부 지수가 조사 대상 142개국 중 79위라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과 연관 지어 보았을 때, 필자는 ㉠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에 대해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 문화에 대해서 필자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썼다.	☐
기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 대해 필자의 관점이 부정적임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다)는 미래 세대가 겪을 폭염의 빈도가 잦아질 것임을 나타내는 장면으로 희망적인 전망이 아닌,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막대그래프를 제시하여 지구의 온도와 폭염의 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나)에서는 붉은 하늘에 매연을 뿜고 있는 공장 굴뚝의 사진을 배경으로 제시함으로써 기후 위기의 원인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 속 이산화 탄소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라)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피해가 뻗어 나가는 것을 가운데에서 선이 뻗어 나가는 방사형의 이미지로 시각화함으로써, 사회적 피해와 열사병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이 자료는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제작자의 의도로 제작되었다.

05 (라)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와 열사병 사망자 수가 확산되는 모습을 방사형의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미래 세대가 앞으로 폭염을 더 자주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강조하며 '매년 1~2번'이라는 시작으로 미래 상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라)는 모두 주로 어두운 배경과 강렬한 주황색을 사용하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공장 매연 사진과 함께 '1.5℃'라는 문자를 가운데에 배치함으로써 기온 상승 폭이 1.5도에 도달하는 것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의 빈도가 8.6배 늘어나는 예측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막대그래프로 표현하여 둘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06 이 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제작자가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아 자료를 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③의 내용은 이미 자료의 (나)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제작자의 의도에 맞는 적절한 감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함께 쓰는 보고서

소스로 계획하기

190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191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202쪽

1 ① 2 ④ 3 ④ 4 ② 5 ④ 6 ③

1 '민재'의 말을 통해 '민재'의 모둠에서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설문 조사 등의 정확한 조사 방법은 모둠 구성원들의 대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②, ③ '예나'의 말을 통해 예상 독자는 '청소년'이고, 조사 대상은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 ④ '민재'의 말을 통해 '청소년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고서의 주제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은호'와 '지수'의 대화를 통해 모둠의 관심 분야는 '청소년의 생활과 운동 실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공동 보고서의 쓰기 과정은 'ㄴ.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 -ㄷ. 목차 구성하기 -ㄹ. 자료 수집하기 -ㄱ. 내용 조직하여 작성하기' 순이다.

참고 자료

공동 보고서의 쓰기 과정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모듬을 구성한다. 모듬 구성원들과 상의하여 보고서 주제를 정하고, 보고서 작성 계획을 세운다.
목차 구성하기	모듬에서 정한 주제와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목차를 구성한다.
자료 수집하기	다양한 매체에서 보고서 주제와 작성 계획에 맞는 자료를 찾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자료를 수집한다.
내용 조직하여 작성하기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서의 형식과 목차에 맞게 조직하고, 복합양식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연구 결과에 따른 성찰은 필요하지 않다. 성찰을 담은 글 쓰기는 주로 수필, 편지, 일기 등에 해당한다. 반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에는 보고서의 주제,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예상 독자, 연구를 하며 알아볼 내용 등의 항목이 필요하다.

4 보고서의 목차는 보고서의 유형과 내용,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머리말, 본문, 맺음말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머리말에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이, 본문에는 연구 방법 및 과정, 연구 내용과 결과가, 맺음말에는 연구 결과 요약, 연구의 한계와 제안이 들어갈 수 있다.

5 자신의 가설과 추측이 담긴 자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에 적절하지 않다.

- 6 모든에서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는지는 공동 보고서의 작성 내용이 아니라 작성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공동 보고서의 작성 내용을 평가할 때는 보고서의 양식에 맞게 조직되었는지, 수집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였는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휘력 UP

204~205쪽

1 (1) ㉠ (2) ㉡ (3) ㉢

2 (1) 조직 (2) 사회화 (3) 수행 (4) 실태

3 (1) ㉠ (2) ㉡ (3) ㉢ (4) ㉣

4 ㉠

5 손발을 맞추다

6 ㉣

- 1 (1) '체계적'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다.
(2) '조율하다'는 '문제를 어떤 대상에 알맞거나 마땅하도록 조절하다.'라는 뜻이다.
(3) '보완하다'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 2 (1)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서 체계 있는 집단을 이룸. 또는 그 집단.'이라는 의미로 제시된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조립'은 '여러 부품을 하나의 구조물로 짜 맞추.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사회화'는 '인간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 생활하도록 기성 세대에 동화함.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정보화'는 '지식과 자료 따위를 정보의 형태로 가공하여 가치를 높임.'이라는 뜻이다.
(3) '수행'은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수확'은 '어떤 일을 하여 얻은 성과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4) '실태'는 '실제의 물체, 또는 외향에 대한 실상.'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실태'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또는 실제의 모양.'이라는 뜻이다.
- 3 (1)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라는 뜻으로 사건이 단순한 동기로 시작되었다는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2)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이 외국인에게 자랑할 만하다는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3)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이라는 뜻으로 학교 안내 게시판에서 시험 범위를 확인했다는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공동'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자격으로 관계를 가짐.'이라는 뜻으로 육상 대회에서 함께 금메달을 받았다는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4 ㉠은 오류가 기재된 내용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음.'이라는 뜻의 '정정'이 적절한 표현이다.

- 5 '손발을 맞추다'는 '함께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 따위를 서로 맞게 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손이 크다'는 '썸썸이가 후하고 크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손을 거치다'는 '(무엇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있다.', 또는 '(무엇이 사람의) 노력으로 손질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 6 '침소봉대(針小棒大)'는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을 이르는 말이므로 대수롭지 않은 일을 과장하였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고진감래(苦盡甘來)'가 어울린다.
②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이 어울린다.
③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 어울린다.
⑤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뜻하는 '새옹지마(塞翁之馬)'가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206~20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연관성)

- 01 (가)와 (나)는 보고서를 쓰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 (나)는 '목차 구성하기' 단계에서 목차를 보며 역할을 나누는 모둠 구성원들의 대화이다.

- 오답 풀이 ① (나)를 통해 공동 보고서 작성 계획과 목차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역할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은호'와 '지수'가 청소년의 운동 실태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민재'가 청소년의 운동 실태를 조사하여 '운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를 쓰자고 하였다.
③ (나)의 '지수'의 말을 통해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도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나)의 '민재'의 말을 통해 통계청 누리집에서 연구 자료를 찾아 보고서에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02 보고서의 목차는 보통 머리말, 본문, 맺음말로 구성되며, <보기>에서 'Ⅱ. 본문'의 '4. 연구 내용과 결과'에서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연구의 한계는 'Ⅲ. 맺음말'에서 제시할 수 있다.

- ② 'Ⅱ. 본문'에서는 조사 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과정과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가 '운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사이의 연관성'이므로 성인의 운동 실태를 다룬 연구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④, ⑤ 'Ⅲ. 맺음말'에서는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제시할 수 있으나, 연구 자체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의 운동 참여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보고서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03 (나)를 통해 모든 모둠 구성원이 전문가의 인터뷰를 찾아본다는 지, 설문지를 작성하고, 여러 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찾고, 통계청 누리집에서 연구 자료를 조사하는 등 각자 역할을 맡아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료만을 수집·활용할 필요는 없다.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는 모두 활용 가능하다.

- ③ 공동 보고서는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작성 등 모든 절차와 과정을 모둠 구성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 ④ 모둠원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율을 해야 한다.
- ⑤ 공동 보고서 작성은 모둠 구성원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야 한다.

04 이 글은 공동 보고서의 내용을 조직하고 작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서의 형식과 목차에 맞게 조직하고,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진행된다.

오답 풀이 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자료 수집하기'에서 진행된다.

- ② 연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목차를 구성하는 것은 '목차 구성하기'에서 진행된다.
- ③, ④ 모둠 구성원들과 상의하여 보고서 주제를 정하고,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은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에서 진행된다.

05 <보기>의 머리말 초고에는 연구 과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연구 과정은 본문에서 주로 제시된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 10대의 ~ 깨닫지 못하고 있다.'까지를 연구 동기로 밝히고 있다.

- ② 설문 대상으로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선정하여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③ 조사 내용으로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의 연관성을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 ④ 조사 목적으로 운동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06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제를 고려하였을 때, ㉠은 주제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이 글은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운동의 필요성과 운동 시간 증대 방안은 주제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 내용을 보충할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한다.

07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연구 주제와 목적' 항목에서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성 분석'을 정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연관성)'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서 찾아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연관성)'라고 썼다.	☐

참고 자료

보고서의 종류

조사 보고서	어떤 주제에 대해 문헌 찾기, 인터넷 검색, 면담,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쓴 보고서
실험 보고서	실험 계획과 과정을 기록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 그 내용을 쓴 보고서
관찰 보고서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뒤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쓴 보고서

대단원 평가 ①

210~214쪽

01 ④ **02** 세상을 떠나 그 여행에 동행할 수 없었던 '칼'의 아내 '엘리'는 반복되는 테마 음악을 통해 강력하게 상기됨으로써 그 여정에 내내 함께한다. **03** ⑤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① **09** ④ **10** ④ **11** ㉠ 이 동영상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1.5도 상승할 경우 강한 폭염이 찾아지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나는 이 동영상을 보고, 폭염이 앞으로는 훨씬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12** ⑤ **13** ⑤ **14** ④

01 이 글은 매체 비평 자료로, 매체 비평 자료는 매체 자료를 감상한 후, 자신만의 관점을 바탕으로 매체 자료를 분석하거나 평가한 글이다. ④는 제작자의 관점을 담아 매체 자료를 평가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비평할 매체 자료를 선정하고 감상하는 것이 매체 자료 비평의 시작이다.

- ②, ③ 매체 자료를 분석할 때는 표현 방법, 관점 및 의도, 가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비평할 분석 영역을 구체화하고, 질문을 만들어 분석한다.
- ⑤ 매체 비평 자료는 매체 비평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매체 유형을 선정하여 제작한다.

02 필자는 영화 속에서 테마 음악이 여행에 동행하지 않은 '엘리'를 상기시키며 '칼'의 여정에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서 알맞은 효과를 찾아 한 문장으로 썼다.	☐

03 필자는 이 영화에 대해 ‘애니메이션 「업」은 꿈과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 본유의 영역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과학한 노인인 ‘칼’과 호기심 많은 소년인 ‘러셀’이 말하는 개와 거대한 회귀 새를 만나 신비의 폭포를 향하는 여정에서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아 관객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04 필자는 (다)에서 캐릭터 디자인과 배경, ‘칼’과 ‘러셀’의 외모 대비 등 ‘ㄴ. 인물이나 배경을 형상화하는 방법’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라)에서는 풍선이 부풀면서 떠올라 비행할 때 쓰인 음악이 서정적이면서 내향적이라고 표현하며 ‘ㄱ. 사용된 음악’에 대한 효과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마)에서는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등실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 이미지와 주제를 연결 지어 ‘ㄷ.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비평 요소로 삼았다.

05 (마)에서는 이 여행에 지나온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 함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등실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의 이미지는 ‘머무르면서 떠나는 역설’, 즉 이층집은 옛 집의 추억을 간직하는 것, 풍선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6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분석한 후 기부가 큰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행동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07 이 글의 (나)에는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은 후, 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그 결과를 표로 압축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우리나라 순위가 낮은 세계 기부 지수 순위를 막대그래프로 보여 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 ② (가)에서 세계 기부 지수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기부 지수가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의향과 기부 참여율 추세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막대그래프를, (나)는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하여 수치를 비교하고 수치가 변화하는 것을 보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08 필자는 (가)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라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나)에서는 그 원인으로 무관심과 불신, 경제적 이유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했다. (다)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필자는 ‘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자.’는 의도로 이 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09 이 자료의 제작자는 폭염과 같은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기후 위기를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우리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와 노력이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10 제작자는 <보기>의 기획 의도에서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와 (라)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현세대의 폭염 경험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지 이전 세대는 폭염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는 불타는 것 같은 지구를 배경으로, ‘폭염’이라는 문자를 중앙에 배치해 주제를 직관적으로 나타내었다.
- ③ (나)에서는 ‘50년에 한 번!’, ‘5배’ 같은 문구를 통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막대그래프를 통해 지구의 온도와 폭염의 빈도 간의 관계를 한눈에 표현하고 있다.

11 이 매체 자료에 담긴 필자의 관점과 의도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매체 자료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언급하는 문제 상황과,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함께 제시하며 ‘이 동영상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1.5도 상승할 경우 강한 폭염이 잦아지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나는 이 동영상을 보고, 폭염이 앞으로는 훨씬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라고 쓸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에 비추어 이 자료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언급했다.	☐
자료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썼다.	☐

12 (다)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를 보여 주는 설문 조사 자료이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공동 보고서 주제에 알맞은 자료로 글에 활용하기 적절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쓴 자료는 아니다.

13 운동이 학습 시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체 75명 중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36명,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22명으로 긍정 평가 비율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설문 조사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복합양식 자료이다.
- ② 설문 참여 인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전체 178명 중 75명이 참여하였으므로, 50퍼센트를 넘지 못했다.
- ③ 설문 조사에 참여한 75명의 인원 중 운동이 집중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5퍼센트가 아니라 5명이다.
- ④ 조사 기간을 늘리거나 설문 조사 문항을 변경하면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다.

14 운동의 필요성과 운동 시간 증대 방안은 ‘2. 연구 주제와 목적’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맺음말의 ‘5. 연구 결과 요약’에는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연구 결과 요약에 들어가기 적절하지 않다.

- 01 ① 02 ⑤ 03 ⑤ 04 ⑤ 05 ③ 06 ① 07 최근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의 등장에 대해서 필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8 ⑤ 09 ⑤ 10 사람들이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11 ① 12 모둠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3 ③ 14 ③ 15 ①

01 이 글은 매체 비평문으로, 이러한 매체 비평 자료에는 비평한 사람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쓴 자료라도 매체 비평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해당 매체 비평 자료에 담긴 관점만이 유일하지 않으며, 매체 비평 자료를 수용하는 사람에 따라 매체 자료에 대한 다양한 비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매체 비평 자료는 비평한 사람의 관점과 가치가 담겨있기에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평한 내용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야 한다.

- ③ 매체 비평 자료를 수용할 때는 비평한 사람이 공정한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비평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④ 매체 비평 자료를 읽은 후에는 매체 비평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⑤ 매체 비평 자료에서 나와 관점이 다른 내용을 찾는 것은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올바른 자세이다.

02 필자는 (라)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으로 극의 초반부의 ‘칼’과 ‘엘리’가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부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홀로 풍선을 들고 귀가하는 순간까지를 압축한 장면과, 후반부의 ‘칼’이 ‘엘리’의 쓴 문장을 발견하는 장면을 꼽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캐릭터를 만화적이고 정감 어린 인물의 느낌을 강조했다고 하였다.

- ② (나)에서 배경을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력으로 생생하게 살렸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이 영화는 시종 유쾌한 분위기이지만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관객에게 감동과 용기를 안긴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필자는 다른 오락 영화들이 휘몰아치지만 한다면, 영화 ‘업’은 우아한 리듬과 서정적 음악이 만나 다른 오락 영화들이 체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03 ㉔에는 영화 주인공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며, 필자가 영화 사회에서 빨간 풍선을 받고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떠올린 것이다. 해당 부분에서는 필자의 경험과 연관된 영화 ‘업’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04 (가)에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도 조사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기부는 더 이상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일상 속에서 가볍고 즐겁게 기부를 실천해 보자고 권유하고 있다.

- ② (가)를 통해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부 단체 등에 대한 불신’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관심, 불신, 경제적 이유로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에서는 ‘퍼네이션’, (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등을 제안하였다.
④ (나)를 통해 필자는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면 기부를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부에 관심을 가질만한 흥미로운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라)에서 활용된 이미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예시를 보여 주며, 해당 개념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 단체에서 기부 계획을 공개하고 익명의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받는 방식이다. 소화기를 들고 있는 어르신의 이미지와 함께 목표 기부 금액과 기부액을 직관적으로 나타내어 ‘크라우드 펀딩’의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기부하는 사진을 인증하는 이미지는 ‘퍼네이션’의 예시이다. (라)에서 활용한 이미지는 ‘크라우드 펀딩’의 예시 이미지이므로 관련지을 수 없다.

- ④ 낮은 기부 참여율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그래프는 (라)에서 활용한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
⑤ (라)에 활용한 이미지는 어르신이 소화기를 들고 있는 이미지이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께 소화기를 기부하자는 목표를 지닌 ‘크라우드 펀딩’의 예시를 보여 주는 것이다.

06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일 때에는 그 해결책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방법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부 단체의 지속적인 소통은 ‘기부 단체 등에 대한 불신’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일 때의 해결 방안이다.

07 최근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의 등장에 대해서 필자는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고,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적은 금액으로도 부담감 없이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부의 문턱을 낮추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최근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의 등장에 대해서 필자는~’으로 문장을 시작했다.	☐
㉔와 ㉕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 긍정적이라고 썼다.	☐

08 이 자료는 미래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자주, 더 높은 기온의 폭염을 겪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세대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여 더 강한 폭염에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의 빈도가 8.6배 늘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의 빈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 ② (라)를 보았을 때 폭염이 더 자주 강하게 일어나면 사회적 피해와 열사병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을 알 수 있다.
- ③ (나)를 통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것을 알 수 있다.
- ④ (다)를 통해 2030년대에 태어날 미래 세대는 폭염을 이전 세대에 비해 더 자주 겪어야 함을 알 수 있다.

09 가운데에서 선이 뺀어 나가 여러 사람과 연결되는 그림을 통해 사회적 피해와 열사병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산업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나)와 (다)에서 '1.5℃', '매년 1~2번' 등 중요한 내용은 문자로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다.
- ② 이 자료는 화면, 문자, 그림 등의 복합양식의 요소가 포함된 동영상 자료이다.
- ③ (나)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는 사진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④ (가)에서 지구의 온도와 폭염의 빈도를 비교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막대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다.

10 (나)는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사진과 함께 '1.5℃'라는 문자를 제시하여 이산화 탄소 배출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며, 현재 세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 대한 제작자의 의도는 '사람들이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자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을 썼다.	☐
장면 (나)에 제시된 '이산화 탄소' 등의 단어를 활용했다.	☐

11 공동 보고서는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 - '목차 구성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내용 조직하여 작성하기'의 과정을 통해 작성된다.

12 제시된 대화에서 '하나'는 각자 역할을 정해 보자고 모둠 구성원들에게 제의하며, 자신의 할 일도 말하고 있다. '소연' 역시 자신의 역할을 먼저 제안하고 있다. 반면 '유현'은 공동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므로 '유현'이 지켜야 할 태도는 '모둠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둠 구성원에 협조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썼다.	☐

13 'I. 머리말'에서 청소년의 운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 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를 제시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제시된 공동 보고서의 목차의 'I. 머리말'에서 연구 동기, 연구 주제와 목적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② 제시된 내용의 <주제>를 통해 모둠의 연구 목적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은 'I. 머리말'에 제시되어야 한다.
- ④ 공동 보고서 목차의 'II. 본문'에서 연구 과정, 연구 내용과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⑤ 공동 보고서 목차의 'III. 맺음말'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소감을 밝혀야 함을 알 수 있다.

14 <보기>의 기사에서 '10대의 생활 체육 참여율은 이전 기간에 조사된 55퍼센트보다 2.4퍼센트포인트 하락한 52.6퍼센트로 평균에 못 미쳤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10대의 생활 체육 참여율이 나타나 있지 않아 신뢰성과 적절성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케이비에스(KBS) 뉴스 누리집으로 명확한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
- ② 문화 체육 관광부가 전국 17개 시·도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 생활 체육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④ 전 연령대 중 10대의 생활 체육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라고 있으므로 'I. 머리말'에서 연구 배경을 설명하며 청소년의 낮은 생활 체육 참여율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보기>의 기사는 10대의 스포츠 참여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동 보고서 주제인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적합한 내용이다.

15 (가)는 여성 가족부가 특정 표본을 상대로 조사한 청소년 종합 실태 조사이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두 자료 모두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인 것은 아니다. (가)를 통해서만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객관성	주관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아야 함.
정확성	관찰, 조사,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으며 그 내용과 결과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함.
신뢰성	사실에 근거한 정보, 자료 등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해야 함.
체계성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과 결과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해야 함.

01 변화하는 국어와 매체

스스로 계획하기

224쪽

1 ○ 2 × 3 ○

마리 알고 가기

225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233쪽

1 ① 2 ③ 3 ④ 4 ⑤ 5 ④

1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반치음)’, ‘♬(순경음 비음)’, ‘·(아래아)’ 같은 음운이 있었는데, ‘말씀’에서 이러한 음운 중 하나인 ‘·(아래아)’를 확인할 수 있다.

2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음절의 중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옮겨서 쓰는 방법인 이어 적기를 했다. ‘말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중세 국어의 표기상 특징

-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받침 표기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사용하는 8중성법이 쓰였다.
-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 적기도 쓰였다.
- 세로쓰기를 하였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
- 글자 왼쪽에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을 찍었다.

3 <보기>는 『용비어천가』(1447)로, 방점으로 성조를 표시했고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음운인 ‘·’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어 적기를 하였고 ‘보르·매’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린 것으로 보아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시·미’는 ‘심+이’를 이어 적기한 것으로, 주격 조사는 현대 국어와 동일하게 ‘이’를 사용하였다.

4 ‘말씀·미’는 ‘말씀+이’, ‘쁘·들’은 ‘쁘+을’, ‘노·미’는 ‘놈+이’로, <보기>에 제시된 어휘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음절의 중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쓰는 이어 적기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은 ‘쁘·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② ‘말씀·미’와 ‘노·미’에서 주격 조사 ‘이’가 ‘ㅣ’ 형태로 사용되었다.

③ ‘말씀·미’, ‘쁘·들’, ‘노·미’에서는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말씀·미’에만 ‘·(아래아)’와 같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운이 있다.

5 <보기>에서는 지금의 기성세대도 어린 시절에는 그들만의 언어를 썼고, 중요한 건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따라서 국어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어의 변화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임을 알 수 있다.

확인 문제 +

242쪽

1 ③ 2 ⑤ 3 ① 4 ② 5 ④

1 매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와 기술, 환경을 의미한다.

2 매체는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 왔고, 특정 매체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 맞는 언어적 특징이나 소통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중화되기 전에도 문자 언어, 인쇄 매체, 전파 매체 등의 매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3 인터넷 뉴스는 텔레비전 뉴스와 달리 댓글 등을 통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문자를 활용한 인쇄물을 통해 전파하는 것은 인쇄 매체의 특성이다.

③ 말을 중심으로 표정, 몸짓 등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것은 음성 언어의 특성이다.

④ 사진과 그림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정보 전달이 시작된 것은 인쇄 매체가 등장하면서이다.

⑤ 텔레비전 뉴스와 인터넷 뉴스 모두 다수의 사람들을 소통 상대로 삼아 정보를 생산한다.

참고 자료

전파 매체와 디지털 매체의 비교

전파 매체(텔레비전 뉴스)
• 정보 제공자가 한정되며, 수용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됨. •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등이 복합된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함. •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달함. • 제공자와 수용자가 소통하는 방법이 제한적임.
디지털 매체(인터넷 뉴스)
• 댓글 등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음. • 문자, 영상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함. •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큼.

4 개인 방송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활성화로 인해, 과거에는 정보를 수용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던 개인이 정보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수용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또한 수용자끼리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정보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되었다.

5 디지털 매체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할 경우, 신뢰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광고인 줄 모르고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디지털 매체 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광고임을 밝히고 정당하게 홍보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바람직한 매체 소통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언어 예절을 갖추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
 - ② 알게 된 정보는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한 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야 한다.
 - ③ 무분별한 악성 댓글은 사이버 폭력이므로, 바람직한 매체 소통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소통해야 한다.
 - 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댓글을 비난하기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어휘력 UP

244~245쪽

1 (1) ㉠ (2) ㉡ (3) ㉢

2 (1) 보완 (2) 확산 (3) 보급 (4) 유입

3 (1) ㉠ (2) ㉢ (3) ㉠ (4) ㉢

4 ㉢

5 경중을 올린다

6 ㉠

- 1 (1) '역동적'은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2) '일상적'은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3) '제한적'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는 뜻이다.
- 2 (1)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이라는 뜻이다.
 (2) '확산'은 '흩어져 널리 퍼짐.'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해산'은 '모였던 사람이 흩어짐. 또는 흩어지게 함.'이라는 뜻이다.
 (3) '보급'은 '널리 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함.'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배급'은 '나누어 줌.'이라는 뜻이다.
 (4) '유입'은 '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옴.'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유출'은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이라는 뜻이다.
- 3 (1) '기반'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라는 의미이다.
 (2) '매개체'는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맺어 주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3) '요인'은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라는 의미이다.
 (4) '단절'은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음.'이라는 뜻이다.

4 ㉢은 꽃을 가꾸는 곳을 말하고 있으므로, '광선, 온도, 습도 따위를 조절하여 각종 식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하는 구조물.'이라는 뜻의 '온실(溫室)'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5 '경중을 올린다'는 '잘못이나 위험을 미리 경계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의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고배를 들다'는 '패배, 실패 따위의 쓰라린 일을 당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도마 위에 오르다'는 '어떤 사물이 비판의 대상이 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에는 '부화뇌동(附和雷同)'이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②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적절하다.
 - ③ '귀가 술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감언이설(甘言利說)'이 적절하다.
 - ④ '어떤 일의 요점만 간단히 말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거두절미(去頭截尾)'가 적절하다.
 - ⑤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형설지공(螢雪之功)'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246~24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중세 국어에서 사용되던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현대 국어에서는 '과(와)'로 바뀌었다. 10 ㉣
 11 ㉢ 12 ㉣ 13 ㉢ 14 ㉣ 15 (가)와 달리 (나)는 소통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음만 입력하거나 말을 줄이고 발음대로 쓰는 등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대와 정보나 감정을 주고받는다. 16 ㉣

01 <보기>에서는 국어가 끊임없이 변화하여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언어의 특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이다.

참고 자료

언어의 특성

자의성	언어의 말소리(형식)와 의미(내용)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나 의미 또는 규칙이 바뀌고, 있던 말이 사라지거나 없던 말이 생긴.
창조성	한정된 말이나 문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음.
규칙성	언어는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일정한 법칙이 있음.

02 중세 국어에서는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세로쓰기를 하였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 ② 중세 국어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 ‘-음/-음’이 쓰였다.
- ③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어 적기를 하였다.
- ⑤ 중세 국어의 어휘는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 외래어가 유입되어 쓰이기도 했다. 또 이전에 비해 한자어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03 ⑤는 앞말의 초성 ‘ㄹ’을 그대로 앞말에 적고 뒷말의 초성에 ‘ㅇ’을 적는 끊어 적기를 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어 적은 이어 적기를 하였다.

04 ‘ㅁ·른’에서는 음성 모음(ㅡ)과 음성 모음(ㅡ)이 어울려 쓰이고 있어 <보기>에서 말한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 ‘ㅏ, ㅑ, ㅓ’는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 ‘ㅜ, ㅠ, ㅡ’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에 비해 잘 지켜졌다.

- 오답 풀이** ①, ⑤ 양성 모음 ‘ㅏ’와 ‘ㅑ’가 어울려 쓰였다.
- ③, ④ 양성 모음 ‘ㅑ’가 연달아 쓰였다.

05 ‘ㅁ·ㄹ·래’의 ‘애’는 현대 국어의 ‘애’와 같이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했다.

- 오답 풀이** ① ‘내·히’는 ‘내+이’로, 현대어로 풀이하면 ‘내가’이므로 ‘이’가 주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불·휘’는 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으로 주격 조사가 ∅로 나타나고, ‘시·미’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경우이다.
- ③ ‘아·니’에서는 양성 모음(ㅏ)과 음성 모음(ㅣ)이 어울려 쓰이고 있어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의 사례는 아니다.
- ⑤ ‘남·근’은 현대어로 ‘나무는’, ‘므·른’은 현대어로 ‘물은’으로, ‘은’과 ‘은’은 모두 현대 국어의 ‘은/는’에 해당하는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음운 환경에 따라 ‘이’, ‘ㅣ’, ‘∅’로 실현되었다.

구분	내용	예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어린 百姓(백성)이
ㅣ	‘ㅣ’나 반모음 ‘ㅿ’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테(부터 + ㅣ)
∅(생략)	‘ㅣ’나 반모음 ‘ㅿ’로 끝난 체언 뒤	불휘(불휘 + ∅)

06 8종성법은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쓰는 것으로 ‘긔’의 ‘ㅈ’ 받침과 8종성법은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가·픈’은 이어 적기를 했다.
- ② ‘부·래’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운인 ‘ㅑ’가 쓰였다.

- ④ ‘하·니’의 기본형 ‘하다’는 ‘많다’의 의미이므로 현대 국어의 ‘하다’와는 다른 어휘이다.
- ⑤ ‘므·른’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했다.

07 이 글은 『훈민정음어제서문』으로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취지를 밝혀 쓴 것이다. 이 글에 나타나는 ‘ㅁ·스·플·여·뉘’에는 현대 국어에서 소멸된 음운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부·래’는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였으므로 모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므·들’에서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다.
- ⑤ ‘수·비’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ㅑ’(순경음 비읍)가 쓰였다.

08 ‘어·린’의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다’를 의미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를 의미하므로 의미가 바뀐 예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⑤ ‘나·랏·말’, ‘ㅁ·빅·성·이’는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③ ‘어·비’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바뀐 예이다.
- ④ ‘노·미’는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비해 지시하고 있는 의미의 범위가 넓었으므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참고 자료

어휘 의미 변화의 유형

의미의 이동	어휘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변화함.
의미의 축소	어휘의 의미 영역이 원래보다 좁아짐.
의미의 확대	어휘의 의미 영역이 원래보다 넓어짐.

09 중세 국어의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애’는 현대에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과/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애’가 ‘과/와’로 바뀐 것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0 <보기>에서는 ‘말·쓰·미’와 ‘말·씀’의 예를 들어 중세 국어의 이어 적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 적기를 한다.

11 ‘수·비’는 ‘쌔’라는 뜻이 아니라 ‘쉽게’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수·비니·겨·날·로·부·래便便安閑·키·고·저·흥·미·니·라’는 ‘쉽게 익혀 날마다 쌔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로 풀이할 수 있다.

12 대량으로 인쇄물을 생산하고 전파하게 된 것은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되기 전인 인쇄 매체의 발달부터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인류는 음성 언어로 소통을 시작하였다. 음성 언어는 곧장 사라져 그 내용을 다른 시간이나 공간으로 옮길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인류는 문자를 만들어 활용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보존하게 되었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 ③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쇄 매체가 등장하였는데, 이전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인쇄물을 생산하고 전파할 수 있어서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시민 사회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 ⑤ 인터넷이 등장하자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었으며,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13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대면 소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발달은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했다.
- ②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댓글 등을 통해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 ④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의 확산 속도가 지극히 빨라졌다.
- ⑤ 디지털 매체 기반의 소통에서는 이미지나 이모티콘 등을 활용한 감성 표현 등 디지털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14 <보기>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은 디지털 매체이다. 디지털 매체는 <보기>와 달리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제약 사항이 <보기>의 텔레비전 뉴스보다 많지 않아 유연하게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수용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어 제작자와 시청자 간의 실시간 상호 작용이 어렵다.
- ② ㉠은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제작한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보기>에 비해 용이하다.
- ③ ㉠은 특정 시청자 층의 관심사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보기>에 비해 용이하다.
- ⑤ ㉠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보기>보다 제약 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개인의 관심사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누구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보기>는 대규모의 자본을 가진 방송국에서 제작하므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에 비해 용이하다.

15 (가)는 편지, (나)는 온라인 대화이다. 온라인 대화는 소통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매체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자음만 입력하거나 말을 줄이고 발음대로 쓰고,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등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대와 정보나 감정을 주고받기 위한 디지털 매체 기반의 언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 '생선', '머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밝혀서 썼다.	☐
'(가)와 달리 (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태의 완결된 문장으로 썼다.	☐

16 <보기>는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할 때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언어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디지털 매체는 허위 정보와 미확인 정보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해야 한다.
- ③, ⑤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퍼지고, 이는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할 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언어 예절을 갖추어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

02 한글 맞춤법과 국어생활

스스로 계획하기

250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251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262~263쪽

1 ㉠: 소리 ㉡: 어법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그 뜻을 이해하는 데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어법에 맞게 형태를 고정하여 적을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보기>는 단어의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구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 오답 풀이** ① '굳이'는 '굳다'에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으로,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 ② '넋다'는 [넋때로] 발음되는데 형용사 '넋다'의 어간 '넋-'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 ④ ‘씻었다’는 [씨섰따]로 발음되는데 동사 ‘씻다’의 어간 ‘씻-’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 ⑤ ‘깎았다’는 [까깎따]로 발음되는데 동사 ‘깎다’의 어간 ‘깎-’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3 <보기>의 단어들은 한글 맞춤법 제5항과 관련이 있다. ‘기쁘다’, ‘가끔’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고, ‘산뜻하다’, ‘살짝’은 ‘ㄴ, ㄹ,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해당 예시들은 모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4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따라, ‘쇠었다’의 ‘쇠-’는 뒤에 ‘-었-’이 어울려 ‘췌-’이 되면 준 대로 적어야 하므로 ‘췌다’가 아니라 ‘췌다’가 맞춤법에 따른 표기이다.

5 ‘장마’와 ‘비’는 모두 순우리말로, 합성어의 표준 발음은 [장마뻘/장말뻘]이다. 앞말인 ‘장마’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장맛비’라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6 사이시옷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꼭지점’은 순우리말(꼭지)과 한자어(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하므로 ‘꼭짓점’이 바른 표기이다.

7 ‘깨끗이’는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깨끗히’로 적지 않고 ‘깨끗이’로 적어야 한다.

8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르면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ㄹ까’, ‘-(으)ㄹ쏘냐’ 등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ㄹ쏘냐’는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느냐’의 뜻으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의문형의 종결 어미로, ‘ㅅ’을 ‘ㅆ’으로 적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어미 ‘-(으)ㄹ게’는 예사소리로 적으므로 ‘갈게’로 적는다.
- ②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어미 ‘-(으)ㄹ걸’은 예사소리로 적으므로 ‘할걸’로 적는다.
- ④ 한글 맞춤법 제56항에 따라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러’로 적으므로 ‘덜더러’로 적는다.
- ⑤ 한글 맞춤법 제56항에 따라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으므로 ‘올라가든지’로 적는다.

9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오답 풀이** ① 띄어쓰기의 목적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수를 적을 때 띄어 쓰는 단위는 정해져 있으며, ‘만(萬)’ 단위로 띄어 써야 한다.
- ③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비롯하여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④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10 이 문장에서 사용된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

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1 한글 맞춤법은 공적인 글쓰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한글 사용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이며, 자신과 주변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휘력 UP

268~269쪽

- 1 (1) ㉠ (2) ㉡ (3) ㉢
- 2 (1) 파악 (2) 혼란 (3) 적용 (4) 개선
- 3 (1) ㉡ (2) ㉢ (3) ㉣ (4) ㉤
- 4 ㉤
- 5 마음을 놓으신
- 6 ㉠

- 1 (1) ‘어법’은 ‘말의 일정한 법칙.’을 뜻한다.
- (2) ‘형태’는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을 뜻한다.
- (3)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뜻한다.

- 2 (1) ‘파악’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간파’는 ‘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림.’이라는 뜻이다.
- (2) ‘혼란’은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논란’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이라는 뜻이다.
- (3) ‘적용’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작용’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이라는 뜻이다.
- (4) ‘개선’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개악’은 ‘고쳐서 도리어 나빠지게 함.’이라는 뜻이다.

- 3 (1) ‘햇수’는 ‘해의 수.’라는 뜻이다.
- (2) ‘뒷알’은 ‘어떤 일이 있는 뒤에 생기거나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다.
- (3) ‘훗날’은 ‘시간이 지나 뒤에 올 날.’이라는 뜻이다.
- (4) ‘법석’은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4 ㉤은 의자를 늘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음.’이라는 뜻의 ‘배열(配列/排列)’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5 ‘마음을 놓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마음에 들다.’는 ‘마음이나 감정에 좋게 여겨지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마음을 붙이다.’는 ‘어떤 것에 마음을 자리 잡게 하거나 전념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①에는 ‘남녀노소(男女老少)’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기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막상막하(莫上莫下)’가 적절하다.

③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갑남을녀(甲男乙女)’가 적절하다.

④ ‘성품이 착한 남자와 여자’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선남선녀(善男善女)’가 적절하다.

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군계일학(群鷄一鶴)’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270~273쪽

01 ⑤ 02 ⑤ 03 어법에 맞게 표기해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04 ⑤ 05 ④ 06 ④ 07 ④ 08 ① 09 ⑤ 10 ④ 11 고친 내용: 될 것 같아. / 고친 이유: ‘될’은 ‘되-’에 ‘-어’가 어울린 것이 아니어서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땀’로 적지 않고 ‘될’로 적는다. 12 ⑤ 13 ① 14 ③ 15 ‘그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6 ④ 17 ① 18 가든지 오든지, 한글 맞춤법 제56항의 2에 따라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낼 때는 ‘(-)든지’로 적는다. 19 ④ 20 ⑤

01 ㉠은 한글 맞춤법에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묻어나다’는 소리 나는 대로 ‘무더나다’라고 적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무덤’은 ‘묻-’에서 온 말이지만 본 형태소의 형태를 살려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무덤’이라고 적는다.

② ‘열매’는 [열매]로 소리 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③ ‘소나무’는 ‘솔’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지만, [소나무]로 소리 나므로 ‘ㄹ’을 탈락시킨 형태로 적는다.

④ ‘드러나다’는 ‘들다’와 ‘나다’가 결합한 말이지만 ‘들다’의 본뜻에서 멀어진 말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나다’로 적는다.

02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단어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⑤는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쇠부치’가 아니라 ‘쇠붙이’로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참고 자료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 이유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에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음으로써 의미 파악을 쉽게 하고 독서의 능률을 높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일꼬, 익찌, 일거, 일그니’가 아닌, ‘읽고, 읽지, 읽어, 읽으니’로 어간과 어미의 각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땀’은 ‘머글까요’, ‘머거요’, ‘꼬치’와 같이 어법에 맞게 써야 하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다. 이러한 표기에 ‘엄마’는 ‘땀’의 의도를 뒤늦게 이해하거나 말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한글 맞춤법의 원칙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썼다.	☐

04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르면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는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한자라도 단어의 어느 위치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음으로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량(良)’은 ‘양심(良心)’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양’으로, ‘선량(善良)’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을 때는 본음인 ‘량’으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제11항에 따르면 한자음 ‘열, 룰’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거나,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질 때 ‘열,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 이어질 때는 ‘렬, 룰’로 적는다.

② 제시된 한글 맞춤법 조항은 된소리, 구개음화, 두음 법칙 등 소리에 관한 조항들이다.

③ 제6항의 ‘종속적 관계’란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④ 제5항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ㄴ, ㄹ, ㄻ, ㄽ’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말한다.

05 ‘깍두기’는 [깍두기]로 소리 나지만, 제5항의 ‘다만’에 따라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같이’는 제6항에 따라 ‘갈-’ 뒤에 접미사 ‘-이’가 온 경우이므로 [가치]로 소리 나더라도 ‘같이’로 적는다.

② ‘씩둑’은 [씩둑]으로 소리 나지만, 제5항의 ‘다만’에 따라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씩둑’으로 적어야 한다.

③ ‘해돋이’는 제6항에 따라 ‘돋-’ 뒤에 접미사 ‘-이’가 온 경우이므로 [해도지]로 소리 나더라도 ‘해돋이’로 적는다.

⑤ ‘출생률’은 제11항의 [붙임 1]에 따라, 한자음 ‘률’이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온 경우이므로 본음대로 ‘출생률’로 적는다.

참고 자료

한 단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타나는 된소리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한 단어’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어인 ‘눈곱[눈꼽], 발바닥[발뻘], 잠자리[잠짜리]’와 같은 표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06 <보기>는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쓰일 때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다룬 두음 법칙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된 한글 맞춤법 제11항에서는 이를 표기에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1항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11항과 <보기>를 통해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리본’은 외래어이다.
 ②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다만’을 보면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하는 데에도 예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두음 법칙은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으로 소리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⑤ 첫소리가 ‘ㄹ’인 한자음은 바로 ‘ㄴ’이나 ‘ㅇ’으로 발음될 뿐, ‘ㄴ’을 거쳐 ‘ㅇ’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다. ‘래일(來日)’이 ‘내일(內日)’로 소리 나고 표기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07 ‘미단이’는 한글 맞춤법 제6항에 의해 [미:다지]와 같이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미단이’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08 ㉠에서는 두음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을 때 ㉡의 ‘연(年)’은 ‘내년(來年)’ ㉢의 ‘유(流)’는 ‘상류(上流)’, ㉣의 ‘예(禮)’는 ‘차례(儀禮)’, ㉤의 ‘양(良)’은 ‘선량(善良)’처럼 적는다. 즉, 모두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은 단어이다. 그러나 ㉠의 ‘야(夜)’는 본음 자체가 [야]이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은 예가 아니다.

09 ‘선울’은 제11항의 [붙임 1] ‘다만’에 따라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ㄹ’이므로 ‘선울’로 적는다.

- 오답 풀이** ① ‘몹시’는 [몹씨]로 소리 나지만, 제5항의 ‘다만’에 따라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몹시’로 적어야 한다.
 ② ‘잔뜩[잔뜩]’은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다. 따라서 제5항의 2에 따라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인 ‘잔뜩’으로 적어야 한다.
 ③ ‘끝이’는 제6항에 따라 ‘ㄱ’ 뒤에 형식 형태소 ‘이’가 온 경우이므로 [꼬치]로 소리 나더라도 ‘끝이’로 적는다.
 ④ ‘견히고’는 제6항에 따라 ‘ㄱ’ 뒤에 접미사 ‘-하-’가 온 경우이므로 [거치고]로 소리 나더라도 ‘견히고’로 적는다.

10 ‘잠그-’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미가 아니므로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잠궤다’가 아니라 ‘잠궤다’로 표기한다.

- 오답 풀이** ① ‘꼬-’에 ‘-아’가 결합하여 ‘파’로 되면 준 대로 적는다.
 ② ‘쑤-’에 ‘-어서’가 결합하여 ‘쑤서’로 되면 준 대로 적는다.
 ③ ‘쇠-’에 ‘-었다’가 결합하여 ‘췌다’로 되면 준 대로 적는다.
 ⑤ ‘쑤-’에 ‘-었으면’이 결합하여 ‘췌으면’으로 되면 준 대로 적는다.

11 ‘뿔 것 같아.’는 ‘뿔 것 같아.’로 고쳐 써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냈’으로 될 적에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지만 이 경우 ‘뿔’은 ‘되-’에 ‘-

어’가 어울린 것이 아니라 ‘-(으)ㄴ’이 결합한 말이므로 ‘뿔’로 적지 않고 ‘뿔’로 적는다.

평가 기준	확인 ☒
‘뿔 것 같아.’를 ‘뿔 것 같아.’로 바르게 고쳐 썼다.	☐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릴 경우 ‘내/냈’으로 될 적에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지만 이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뿔’로 적는다고 썼다.	☐

12 사이시옷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에 받치어 적으며,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햇볕[해뻘/헛뻘]’은 고유어끼리 결합되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틔세[터췌/털췌]’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잇몸[인뿔]’은 고유어끼리 결합되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따라서 세 단어 모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조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ㄴ’ 소리가 덧날 때 뿐 아니라 된소리로 날 때도 붙는다.
 ② 사이시옷은 고유어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 붙는다.
 ③ 사이시옷은 합성어를 형성할 때 붙는다.
 ④ 사이시옷은 두 단어 중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날 때 붙는다.

13 ‘베갯잇[베갯넝]’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로,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예에는 아랫니[아래니], 냇물[넉:물]이 있다.

- 오답 풀이** ② ‘나뭇잎[나뭇넝]’은 ‘나무’와 ‘잎’이라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다.
 ③ ‘긋병[귀뻘/귀뻘]’은 순우리말 ‘귀’와 한자어 ‘병(病)’으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이다.
 ④ ‘제삿날[제삿날]’은 한자어 ‘제사(祭祀)’와 순우리말 ‘날’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로,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다.
 ⑤ ‘예삿일[예삿날]’은 한자어 ‘예사(例事)’와 순우리말 ‘일’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다.

14 ‘많은지’의 ‘지’는 어미 ‘-은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쓴다. ‘상처뿐이야’의 ‘뿐’은 조사, ‘이야’는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므로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 오답 풀이** ① ‘두끼만’의 ‘끼’는 밥을 먹는 횟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고, ‘만’은 조사이므로 ‘두 끼만’으로 띄어 쓴다.
 ② ‘맛있는데’의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맛있는 데’로 띄어 쓴다.
 ④ ‘싫을뿐이다’의 ‘뿐’은 다만 어떠한가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싫을 뿐이다’로 띄어 쓴다.
 ⑤ ‘지금까지’의 ‘까지’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지금까지’로 쓴다.

- 15 '그루'는 '식물, 특히 나무를 세는 단위.'를 의미하는 단위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그루'가 단위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함을 썼다.	☐

- 16 ㉠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앞말인 '나'와 붙여서 '나부터'와 같이 쓴다.
 ㉡ '때입니다'의 '입니다'는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므로 앞말인 '때'에 붙여서 '때입니다'와 같이 쓴다.

- 오답 풀이 ㉠ '살릴수'의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살릴 수'로 띄어 쓴다.
 ㉡ '한명'의 '명'은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한 명'으로 띄어 쓴다.
 ㉢ '필요한만큼'의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필요한 만큼'으로 띄어 쓴다.

참고 자료

'만큼'의 품사 구별

- '만큼'이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만큼' 앞에 '-(으)나', '-(으)고', '-(으)면'과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온다.

예 노력한 만큼, 주는 만큼, 드릴 만큼, 했던 만큼

- '만큼'이 조사일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쓰는데, 이때는 앞말이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해야 하며,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 17 '읽을수록'의 '을수록'은 [을쑤록]으로 소리 나지만, 제53항에 따라 '을쑤록'으로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 '놀러 갔던'의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내므로 제56항에 따라 '-던'으로 써야 한다.
 ㉡ '더울지'의 '을지'는 [을쑤]로 소리 나지만, 제53항에 따라 '을쑤'로 적어야 한다.
 ㉢ '걱정될까'의 '-까'는 [까]로 소리 나지만, 제53항에 따라 '-까'로 적어야 한다. 또한 '-까'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먹든지'로 써야 한다.

- 18 '한글 맞춤법 제56항의 2'의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낼 때는 '(-)든지'로 적는다.'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가든지'가 바른 표기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든지 오든지'를 골랐다.	☐
'한글 맞춤법 제56항의 2'의 내용을 근거로 썼다.	☐

- 19 '먹었을까?'에서 사용한 어미는 '을꼬'로, 현재 정해지지 아니한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로 '을꼬'의 형태로 쓴다.

- 오답 풀이 ㉠ '불결'에서 사용한 어미 '-르결'은 제53항에 따라 예사소리로 적는다.
 ㉡ '추천할게'에서 사용한 어미 '-르게'는 제53항에 따라 예사소리로 적는다.
 ㉢ '끓이지언정'에서 사용한 어미 '-르지언정'은 제53항에 따라 예사소리로 적는다.
 ㉣ '줄아할진대'에서 사용한 어미 '-르진대'는 제53항에 따라 예사소리로 적는다.

- 20 ㉠에서 '벗꽃'은 '벚꽃'으로 고쳐 쓰는 것이 맞지만, '보여 줄 거야.'는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보여 주다'에서 '보이(다)'는 본용언이고 '(-어)주다'는 보조 용언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 오답 풀이 ㉠ '쏟아지'에서 '쏟아'는 '쏟-' 뒤에 어미 '-어'가 붙은 것으로 '쏟아'가 '쏟아'와 같이 줄면 준 대로 적으므로, '쏟아지'는 '쏟아지'로 고쳐 쓴다. '빛깔'의 '-깔'은 '상태' 또는 '바탕'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지각할뻔했어'에서 '할'은 동사 '하다'의 활용형이고, '뻔하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어이없다'는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의 뜻을 지닌 말이다.
 ㉢ '합격률'에서 '율'은 모음이나 '나' 받침 뒤에 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률'이라고 고쳐 쓴다. '할수 있다'의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서 '할 수 있다'로 써야 한다.
 ㉣ '수도물'은 '수도'와 '물'의 합성어로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경우이다. 또, '수도'가 모음으로 끝나고 [수돈물]과 같이 '나'이 덧붙므로 '수돗물'로 사이시옷을 붙여 써야 한다. '어떻게'는 '어떻게'의 잘못된 표기이다.

대단원 평가 1

276~27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나)는 정보 제공자가 한정되어 있고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제공되며, 수용자와 소통하는 통로가 제한적이다. 반면 (다)는 댓글 등을 통해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08 ㉡ 09 ㉡ 10 '지수'가 '같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가치' 뺄집에 가자고 표기했기 때문에 '윤주'는 '지수'가 말하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11 ㉢ 12 ㉢ 13 ㉣

- 01 이어 적기는 앞 단어의 종성을 뒷 단어의 초성으로 옮겨 적는 방법인데, '나·랏:말'은 이어 적기를 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 (나)에는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글자 왼쪽에 표기되어 있다.
 ㉢ '쁘·들'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 '뿌·메'는 '쁘'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쓰였다.
 ㉤ '수·비'의 '빙'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음운이다.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로 옮겨 그대로 전달할 때 쓰인다.

- 오답 풀이** ① 제15항에 따라 '차자'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차아'로 적어야 한다.
- ② 제15항에 따라 '머거'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먹어'로 적어야 한다.
- ③ 제53항에 따라 '불겅'의 어미는 예사소리인 'ㄹ(으)ㄹ'로 적어야 하므로 '불겅'로 적는다.
- ④ 제53항에 따라 '추천할께'의 어미는 예사소리인 'ㄹ(으)ㄹ'로 적어야 하므로 '추천할께'로 적는다.

10 (나)에서 '지수'는 '다음에 같이 사랑 빵집에 가자'는 의미로 '답에 가치 빵집 가자'로 표현했으나, '가치'를 맞춤법 규정에 어긋나게 표기하는 바람에 '윤주'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 규정을 지키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문제를 쓰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썼다.	☐

11 '웃고름'은 고유어 '웃'과 '고름'이 결합한 단어로 [온꼬름]과 같이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ㄱ'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결합하는 명사 중 앞의 단어가 받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사례는 위의 두 가지 조건에도 모두 해당해야 한다. ㉡의 예시로는 '나룻배[나루뻘/나루뻘]', '차집[차집/차집]' 등이 있다.

- 오답 풀이** ① '국어(國語)'와 '사전(辭典)'은 모두 한자어이므로 첫 번째 조건으로 인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② '문고리'는 한자어 '문(門)'과 고유어 '고리'가 결합한 단어이다. 이때 앞 단어는 '문'으로, 'ㄴ' 받침으로 끝난다.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④ '잇몸'은 고유어 '잇'과 '몸'의 합성어로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 여기에 'ㄴ' 소리가 덧붙여 [인몸]으로 발음된다.
- ⑤ '뒋일'은 고유어 '뒋'과 '일'의 합성어로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 여기에 'ㄴ' 소리가 덧붙여 [뒋닐]로 발음된다.

12 ㉡에서 '나에게만이라도'의 '에게', '만', '이라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모두 붙여 써야 한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말은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을 때뿐만 아니라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거나 어미 뒤에 붙을 때에도 그 앞말에 붙여 씀을 뜻한다. 따라서 조사가 연속되는 '나에게만이라도'는 모두 붙여 쓴다.

- 오답 풀이** ① '똥한 바에서'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쓴다. 의존 명사는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 ② '너밖에'에서 '밖에'는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앞말에 붙여 쓴다.

- ④ '놀라기 보다는'에서 '보다'와 '는'은 모두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모두 붙여 쓴다.
- ⑤ '해바라기 한 송이'에서 '송이'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제43항에 따라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3 ㉡의 '같이'는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조사에 관한 규정인 제41항에 근거하여야 하고, 앞말에 붙여 '매일같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의 '와'는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사과와'로 붙여 써야 한다.
- ② ㉡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들릴 만큼'으로 띄어 써야 한다.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된다.
- ③ ㉡의 '한'은 단위를 나타내는 자립 명사이므로 제43항에 따라 '한 방울'로 띄어 써야 한다.
- ⑤ ㉡의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은 띄어 쓴다. '겸'은 관형사형 어미 'ㄹ(으)ㄹ'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45항에 따라 '아침 겸 점심'으로 앞뒤 모두 띄어 써야 한다.

참고 자료

'같이'가 부사로 쓰여 띄어 써야 할 때

1.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를 의미할 때
예 모두 같이 갑시다.
2.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를 의미할 때
예 예상한 바와 같이 성적이 떨어졌다.

대단원 평가 ②

280~283쪽

- 01 ③ 02 ⑤ 03 ④ 04 ⑤ '부루·매'와 '·구·래'에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⑤ 06 ④ 07 ④ 08 ① 09 ④ 10 ① 11 허위 정보가 확산된다. 12 ② 13 ③ 14 ④

01 (가)와 (나)는 모두 중세 국어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중세 국어 시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나 'ㅁ'와 같이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이 있었으며, '말쑥·미'나 '기·폰'처럼 한 음절의 중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쓰는 이어 적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나. (가)의 '니르·고·저' 등을 통해 중세 국어 시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는 이에 해당되는 예가 없다.

ㄷ. (가)의 '부·들', '부·매'를 통해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는 이에 해당되는 예가 없다.

02 ㉠의 '中庭國·국·에'에 쓰인 부사격 조사 '에'의 경우, '중국과'로 풀이하는 것으로 보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비교 부사격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말쑥·미'에 쓰인 '·'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모음 글자이다.

② '말쑥·미'에서 쓰인 주격 조사 '이'는 현대 국어와 동일하다.

③ '나·랏'에 쓰인 관형격 조사 'ㅅ'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다.

④ 현대 국어와 달리 성조가 있었고, 이를 나타내는 방점을 글자 왼쪽에 찍었다.

참고 자료

중세 국어의 성조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가 있어서 뜻을 구별하였으며,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었다.

종류	방점	특징
평성	점이 없음.	낮은 소리
거성	방점 1개	높은 소리
상성	방점 2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03 ㉠의 '어엿·비'는 '가엿게, 불쌍하게'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어휘의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의 의미이므로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② '배'는 '바'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경우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가'를 쓰므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주격 조사가 사용된 예이다.

③ '퍼·디'는 현대 국어에서 '퍼지'로, 현대 국어로 오면서 'ㅣ' 모음 앞의 '디'가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⑤ '부·매'의 'ㅁ'은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둘 이상 연속으로 오는 어두 자음군이다.

04 '부루·매'와 '·구·래'에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부루·매'와 '·구·래'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을 썼다.	☐
음운 측면에서 공통점을 썼다.	☐

05 '덥다'는 'ㅁ 불규칙' 용언이고 '짓다'는 'ㅅ 불규칙' 용언이다. 중세 국어 시기에 '덥다'의 활용형에 'ㅁ'이, '짓다'의 활용형에 '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음운들의 변화가 현대 국어에도 흔적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무숨'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 두 번째 음절에서 먼저 'ㅡ'로 변화한 후 첫 번째 음절에서 'ㅁ'로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음운이라도 변화 시기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과 ㉡를 통해 'ㅅ'이 대체로 소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과 ㉡, '부루·매'에서 단어의 첫째 음절인 '부'는 'ㅁ'로, 'ㅅ'는 'ㅅ'로, '부'는 'ㅁ'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단어의 첫째 음절의 '·'가 주로 'ㅁ'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더뵈'는 '더워'로 변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ㅁ'이 흔적을 남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불규칙 활용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이렇게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일정한 형태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면 규칙 활용,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환경에 따라 달라져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06 <보기 1>에는 '눈비를마지머'와 같이 이어 적기를 한 표기가 드러나지만 <보기 2>에는 이어 적기한 표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와 <보기 1>에서 나타나는 국어의 모습이 다르고, <보기 1>과 <보기 2>에서 나타나는 국어의 모습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아 국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② <보기 1>은 현대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인 가로쓰기를 하지 않고 세로쓰기를 하고 있다.

③ <보기 1>에서는 '물을건너갑니다'와 같이 현대 국어에서라면 '물을 건너갑니다'처럼 띄어 쓸 부분을 띄어 쓰지 않고 있다.

⑤ <보기 1>에서 '나루ㅅ배', '김흐나'로 표기한 단어를 <보기 2>에서는 각각 '나룻배', '김으냐'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맞춤법이 시대마다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7 ㉠에서 '걱정 어린 시선'은 무수히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과 단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한자어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②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신조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가 이를 비난하고 외면한다는 내용은 없다.

③ 기성세대도 어린 시절엔 그들만의 언어를 썼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에 대한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반응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기성세대가 신조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에 대한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이 글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비난보다는 관심, 외면보다는 경청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도 지적이나 개선 요구보다 의사소통을 우선으로 하는 태도가 바람직함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신조어를 자주 사용하더라도, 신조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비난하기보다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③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외면하기보다 경청을 통해 의사소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④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세대와 집단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⑤ 국어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문점을 나누어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9 개인 방송인 (가)의 경우, 정보의 수용자가 생산자와 보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쉽다. (가)의 개인 방송에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다양한 댓글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제공되지만, 개인 방송의 경우 정보가 쌍방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②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된 경우가 많으나, 개인 방송은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그만큼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③ 텔레비전 뉴스와 개인 방송은 모두 문자 언어와 이미지, 영상, 소리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⑤ 개인 방송이 텔레비전 뉴스보다 정보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 쉽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은 텔레비전 뉴스에 비하여 낮다.

10 (나)는 온라인 대화로,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직접 만나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소통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영서'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다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온라인 대화이므로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접근하여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④ 온라인 대화에서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모티콘과 같은 다양한 기호를 사용한다.

⑤ '다슬'은 '영서'가 공유한 정보에 대하여 '독도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라는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1 (다)에는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제점을 올바르게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2 '확보된'은 '확보되-'에 '-(으)ㄴ'이 결합한 말로, 제35항의 [붙임 2]와 같이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린 경우가 아니므로 '확보된'으로 적지 않고 '확보되'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출생율'은 제11항의 [붙임 1]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본문대로 '출생률'로 적는다.

③ '법색'은 제5항에 따라 'ㅂ'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고 '법석'으로 적는다.

④ '구지'는 제6항에 따라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온 경우이므로 [구지]로 소리 나더라도 '굳이'로 적는다.

⑤ '되'는 '되-'에 '-어'가 결합한 말로 'ㄴ' 뒤에 '-어'가 어울려 '내'로 준 경우이므로 '돼'로 적는다.

13 '깍두기'는 [깍뚜기]로 소리 나지만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살짝'은 'ㄹ'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보아 '살짝'으로 적는다.

② '듬뿍'은 'ㄹ'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보아 '듬뿍'으로 적는다.

④ '산뜻하다'는 'ㄴ'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보아 '산뜻하다'로 적는다.

⑤ '해쓷하다'는 'ㅂ'와 'ㄴ'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보아 '해쓷하다'로 적는다.

14 '돌아오는대로'에서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돌아오는 대로'로 띄어 쓰고, '방식 대로'에서 '대로'는 조사이므로 '방식대로'로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① '실력뿐이다'의 '뿐'과 '이다'는 모두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다할 뿐이다'의 '뿐'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② '이학년'에서 '학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세 학년'에서 '학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떠났는지'의 '-는지'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쓰고, '떠난 지'의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깨뜨려버렸다'의 '버리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씀이 원칙이고, '깨내서 버렸다'의 '버리다'는 본용언이므로 항상 띄어 써야 한다.

5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01 함께하는 협상과 소통

스스로 계획하기

288쪽

1 × 2 ○ 3 ○

마리 알고 가기

289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291쪽

1 ⑤ 2 ⑤

1 원래 미래시는 사랑천 산책로를 연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생태 조사 결과 천연기념물이자 보호 대상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래시는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희망구 주민들과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는 협상을 하게 되었다.

2 '희망구 주민 대표'는 사랑천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래시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사랑천 연장 계획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미래시 공무원'은 수달 보호를 위해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고, 대신 희망구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③, ④ '희망구 주민 대표'는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래시의 입장에 공감하나 희망구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확인 문제 +

293쪽

1 ⑤ 2 ④ 3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하되, 미래시 차원에서 수달 보호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1 이 담화는 협상 상황이다. 협상은 우리 측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의 이익을 함께 실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상에 참여한 모두의 이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2 '미래시 공무원'은 사랑천 산책로 연장 구간을 주택 지역 근처로 옮기자는 제안을 하며 그럴 경우 주민들의 산책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고 말한 사람은 '희망구 주민 대표'이다.

3 (나)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원래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하되, 미래시 차원에서 수달 보호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을 하였다.

확인 문제 +

295쪽

1 ② 2 ③ 3 생태 복합 시설

1 노후된 산책로를 보수하는 것이 안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사람은 희망구 주민 측이 아니라 미래시 측이다.

2 (다)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들께서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해서 사랑천 산책로의 연장을 원한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미래시 공무원'이 파악한 희망구 주민들의 근원적 동기이다.

3 이 협상의 쟁점은 희망구 주민들이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시 공무원'은 생태 복합 시설 건설을 제안했고, 희망구 주민 측은 이에 더해 기존 산책로의 폭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확인 문제 +

297쪽

1 ③ 2 ⑤

1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이 미래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산책로 보수를 마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산책로 보수는 미래시에서 진행하기로 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2 해결 단계의 합의 내용 중 '사랑천 주변 산책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미래시 측이 얻은 이익이다.

오답 풀이 ①, ④ 희망구 주민 측이 얻은 이익이다.

②, ③ 미래시 측과 희망구 주민 측의 상호 협력적 자세이다.

확인 문제 +

299쪽

1 ⑤ 2 비난

1 '철민'은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다수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는 자신의 말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2 '소연'은 '철민'에게 '한심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함으로써 '철민'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어워력 UP

308~309쪽

1 (1) ㉠ (2) ㉡ (3) ㉢

2 (1) 폐쇄 (2) 공감 (3) 무산 (4) 보수

3 (1) ㉠ (2) ㉡ (3) ㉢ (4) ㉣

4 ①

5 누이 좋고 매부 좋다

6 ③

- 1 (1) '모색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라는 뜻이다.
 (2) '조성하다'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다.'라는 뜻이다.
 (3) '편익'은 '편리하고 유익함.'이라는 뜻이다.

- 2 (1) '폐쇄'는 '기관이나 시설을 없애거나 기능을 정지함.'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폐막'은 '막을 내린다는 뜻으로, 연극·음악회나 행사 따위가 끝남. 또는 그것을 끝냄.'이라는 뜻이다.
 (2)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공평'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뜻이다.
 (3) '무산'은 '안개가 걷히듯 흩어져 없어짐. 또는 그렇게 흐지부지 취소됨.'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무모'는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꾀가 없음.'이라는 뜻이다.
 (4) '보수'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보정'은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이라는 뜻이다.

- 3 (1) '여가'는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을 의미한다.
 (2) '쟁점'은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이라는 뜻의 '쟁점'을 의미한다.
 (3) '토대'는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4) '서식하다'는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를 의미한다.

- 4 ①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적선'이 적절하다.

- 5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어떤 일에 있어 서로 다 이롭고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어 이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 6 '사불급설(事不及舌)'은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므로 말조심을 하라는 말.'을 이르는 한자 성어이므로 말을 함부로 옮기다가 곤란해진 상황에 쓰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어울린다.
 ② '잘못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는 대상.'을 뜻하는 '반면교사(反面教師)'가 어울린다.
 ④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뜻하는 '새옹지마(塞翁之馬)'가 어울린다.
 ⑤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뜻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310~313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③ 05 ② 06 ④ 07 사랑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생태 교육 시설을 갖추면, 실내 공간이 있으므로 날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08 ⑤ 09 ④ 10 ⑤ 11 ㉠ 산책로 ㉢ 생태 복합 시설 12 ④ 13 ①

- 01 상호 경쟁적 관계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토론 상황의 의사소통 방법이다. 협상에서는 상호 협력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갈등 조정과 합의를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으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한다.
 ②, ③ 협상은 상대측과 협력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 02 (가)에 제시된 '미래시 공무원'의 발언을 보면 사랑천 주변의 산책로를 연장하는 계획을 수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희망구 주민 대표'는 미래시 측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의 수정'을 쟁점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희망구 주민 대표'가 제안한 수달 보호 캠페인과 그에 대한 '미래시 공무원'의 응답은 핵심 쟁점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③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④ 수달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⑤ 주민들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 03 다. '미래시 공무원'은 (가)에서 산책로를 주택 지역으로 연장하는 것이 산책로의 접근성과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상대측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안을 제시하고, 반응을 살피는 전략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 라. '미래시 공무원'은 (가)에서 수달 보호를 위해 사랑천 연장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며 실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수달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미래시 공무원'은 사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실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상대측의 안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 사람은 '희망구 주민 대표'이다. (나)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미래시 공무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 거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략을 활용한 사람은 '희망구 주민 대표'로, (가), (나)에서 미래시 측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거나 공감을 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04 '희망구 주민 대표'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산책로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들이 사랑천 산책로의 연장을 원하는 이유로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근원적인 동기를 파악했다.
- ②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산책로 연장 대신 희망구에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④ (나)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미래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산책로의 폭을 넓히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 ⑤ (나)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공사가 수달의 서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대신 넓은 산책로의 보수를 제안했다.

05 협상의 진전을 위해 사랑천 산책로 연장을 대신할 안으로 생태 복합 시설 마련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한 사람은 '희망구 주민 대표'가 아니라 '미래시 공무원'이다.

- 오답 풀이** ① '희망구 주민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산책로 연장이 아니라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다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들이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근원적인 동기를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미래시 공무원'은 산책로 연장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넓은 산책로에 보수가 필요한 곳을 미리 파악하였고 이를 대안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미래시 공무원'은 (가)에서 수달의 특징과 수달 서식지와 사랑천 산책로가 겹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06 '희망구 주민 대표'는 미래시의 새로운 제안인 생태 복합 시설에 대해 '반가운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미래시 공무원'과 '희망구 주민 대표' 모두 상대측 제안에 일차적으로 동의하며 협력적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미래시 공무원'은 '생활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상대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
- ③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이 제안한 수달 보호 캠페인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의하고 있다.
- ⑤ '희망구 주민 대표'는 사랑천을 직접 거닐며 여가를 즐기고 싶은 희망구 주민들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주민들의 바람이 충족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07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생태 복합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사랑천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을 세우고 생태 교육 공간과 함께 여가 공간, 쉼터, 전망대 등을 갖추는 것이죠. 실내 공간이 있으므로 날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발언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미래시 공무원'의 말에서 근거를 찾아 썼다.	☐
대화체를 평서문의 형태로 바꾸어 썼다.	☐

08 '희망구 주민 대표'는 생태 복합 시설 공간 조성 계획을 세울 때 희망구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를 미래시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사랑천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래시 측이 얻은 이익이다.
- ②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미래시 측이 희망구 주민 측에 약속한 것으로 협력적인 자세이다.
- ③ 주민 자치회 차원에서 수달을 희망구의 상징으로 홍보하기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미래시 측도 협조하기로 한 것이나 협상을 통해 얻은 이익은 아니다.
- ④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하며 수달 보호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희망구 주민 측이 미래시 측에 약속한 협력적 자세이다.

09 '희망구 주민 대표'는 생태 복합 시설 공간 조성 시, 희망구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였고 미래시 측에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으나, '희망구 주민 대표'와 생태 복합 시설의 부지를 협의하기로 하지는 않았다.

10 사랑천 산책로 연장이 무효가 되면서 희망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희망구 주민 대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희망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 사랑천 산책로 연장에 대한 협상 합의안을 작성하면, 사랑천 ㉠ '산책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랑천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썼다.	☐

12 '철민'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고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즉, 자신의 말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는 조언은 '철민'에게 비난하는 투로 이어지한 '소연'에게 더 적합하다.
- ② 이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을 진실되게 말하지 않거나 과장하여 말한 부분은 없다.
- ③ 이 대화에서 상대방이 가진 배경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 부분은 없다.
- ⑤ '철민'이 겪지 않은 일을 다른 곳에서 듣고 사실 확인 없이 함부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보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게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13 '소연'은 감정을 앞세워 '철민'에게 '한심하다'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소통 윤리를 위배하였다. 따라서 '소연'은 사회적 소통 윤리에 따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02 논증하는 글 쓰기

스스로 계획하기

314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315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328쪽

1 ⑤ 2 ② 3 ⑤ 4 ④ 5 ⑤ 6 ③

1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이란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작문의 관습을 뜻한다.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쓸 때에는 글의 내용과 형식, 조직 방식, 표현 방법,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
 ② 논증하는 글은 예상 독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글이므로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쓰는 것이 중요하다.
 ③ 예상 독자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언어 공동체라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논증하는 글을 쓸 때에는 글의 신뢰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써야 한다.

2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글을 쓸 화제를 정하고 쓰기 맥락과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분석하는 '계획하기' 단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근거를 구성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적절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 조직한 내용대로 논증하는 글을 쓰는 '표현하기' 단계, 글을 고쳐 쓰는 '고쳐쓰기' 단계 순으로 이루어진다.

3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와 같은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귀납, 연역과 같은 적절한 논증 방법을 활용해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이다.

- 오답 풀이** ①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점검한 내용과 다른 사람이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고쳐 쓴다.
 ②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논증하는 글을 쓸 화제를 정하고 쓰기 맥락과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분석한다.
 ③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근거를 구성한다.
 ④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조직한 내용대로 쓰기 맥락과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논증하는 글을 쓴다.

4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찾고, 선별하여 근거를 구성한다.

5 논증하는 글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글이므로 다양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필자의 개성을 드러냈는지의 여부보다 주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6 쓰기 윤리는 필자가 글을 쓸 때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으로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전반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② 자료를 활용할 때 원저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킨 것이다.
 ④ 공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고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⑤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규범으로 글을 쓰는 전반에서 쓰기 윤리를 지켰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

어휘력 UP

330~331쪽

- 1 (1) ㉠ (2) ㉡ (3) ㉢
 2 (1) 계발 (2) 대응 (3) 대처 (4) 자금
 3 (1) ㉢ (2) ㉡ (3) ㉠ (4) ㉣
 4 ①
 5 거리가 멀다
 6 ④

1 (1) '지불하다'는 '돈을 내어주다, 또는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다.
 (2) '영위하다'는 '일을 꾸려 나간다'라는 뜻이다.
 (3) '합리적'은 '이론에 꼭 알맞거나, 말이나 글 또는 일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2 (1) '계발'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개선'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이라는 뜻이다.
 (2) '대응'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대조'는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이라는 뜻이다.
 (3) '대처'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대치'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 또는 '서로 맞서서 버티'라는 뜻이다.
 (4) '자금'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쓰는 돈'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잔금'은 '쓰고 남은 돈'이라는 뜻이다.

3 (1) '견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의미한다.
 (2) '무단'은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아무 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3) '명확하다'는 '명백하고 확실하다'를 의미한다.
 (4) '이해'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을 의미한다.

4 ①에는 '편지나 글, 말의 앞부분을 줄임, 또는 앞부분을 줄였다는 뜻으로 쓰는 말.'인 '전략(前略)'이 적절하다.

5 '거리가 멀다'는 '기대하거나 비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입을 딱 벌리다'는 '너무 기가 막혀 어이가 없어 하거나 매우 놀라워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발 벗고 나서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으로, 무엇이든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를 뜻하는 '대기만성(大器晩成)'이 어울린다.
 ②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뜻하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어울린다.
 ③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뜻하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이 어울린다.
 ⑤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뜻하는 '감언이설(甘言利說)'이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332~333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성을 점검하여 근거를 구성한다.

01 사회적 쓰기 윤리에 따르면 개인이 쓰는 글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02 (나)의 신문 기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 교육 이수자는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바로 경찰이나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며 금융 사기 피해에 더 적절하게 대처했다. '민재'는 이를 근거로 금융 이해력을 길렀을 때 금융 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② (나)는 금융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 금융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제의 글의 근거로 활용하기 적절한 자료이다.
 ④ '민재'는 금융 사기에 대한 글이 아닌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러므로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시한다는 말은 '민재'가 쓰려는 글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⑤ '서민 금융 진흥원'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조사한 내용이다.

03 (다)의 본문에서 '1.'과 '2.'의 구체적인 사실에서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민재는 논증하는 글을 쓸 때의 작문 관습대로 '서론-본론-결론'으로 글을 조직하여 개요를 작성했다.
 ② (다)의 서론의 내용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다)의 '본론 1'에서는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금융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금융 교육을 받으면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다)의 '본론 2'에서는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금융 이해력이 뛰어나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대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04 (라)의 ㉠에서는 금융 이해력 점수가 높은 사람이 금융 이해력 점수가 낮은 사람보다 구매를 신중하게 하는지 확인하는 항목, 카드 이용 금액을 납부일 안에 지불하는지 확인하는 항목, 평소에 자금 상황을 점검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에서 점수가 더 높았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기>에서는 각 항목에서 점수가 35점, 27.1점, 38.2점 더 높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강화하고 근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05 논증하는 글 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에 들어갈 글 쓰기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이다.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성을 점검하여 근거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썼다.	☐
주장을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근거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썼다.	☐

대단원 평가 1

336~339쪽

01 ④ 02 쟁점 1. 수달을 보호하고자 기존의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한다. 쟁점 2. 주민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공간을 원한다. 08 ② 09 ① 10 ④ 11 ⑤ 12 본문 2의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3 ③ 14 ③

01 협상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근원적 동기를 파악하여 양측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방이 제시한 표면적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면 우리 측과 상대방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협상을 할 때에는 우리 측과 상대방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 ② 협상을 할 때 양측은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여 입장 차이를 좁힌 후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 ③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한 갈등을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따라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⑤ 협상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표면적 입장의 이면에 숨겨진 근원적 동기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원적 동기란 협상이라는 의사소통을 통해 진정으로 얻고 싶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협상을 할 때에는 근원적 동기를 찾아내기 위해 상대방이 하는 말 이면의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02** 이 협상에서 (나) '미래시 공무원'은 수달의 서식지와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며, 첫 번째 쟁점으로 '기존의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한다.'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시 공무원'의 제안에 대해 '희망구 주민 대표'가 거절하면서 두 번째 쟁점이 언급된다. 이는 (라)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을 원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 쟁점은 '희망구 주민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 (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쟁점을 썼다.	☐
평서문으로 썼다.	☐

- 03**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은 협상의 '해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04** '희망구 주민 대표'는 미래시의 산책로 연장 계획 수정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현하고는 있다. 하지만 '희망구 주민 대표'가 실망을 느낀 원인은 희망구 주민들이 산책로 연장 계획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시는 사랑천 일대의 오염을 문제 삼으며 산책로 연장 공사를 미뤄 오지도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최근 생태 조사를 한 결과, 수달이 발견되었고 수달을 보호해야 하는 미래시의 입장을 말하며 협상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 ②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④ (가)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산책로 연장 계획 수정에 우려와 실망이 크다고 말하였고, 이런 점을 고려해 희망구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 ⑤ (나)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미래시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하였지만, 희망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미래시에게 요구하고 있다.

- 05** ㉠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산책로 연장에 대해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으며 협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협상 타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희망구 주민 대표'이다.
- ②, ③ '미래시 공무원'은 ㉠에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을 언급하거나 상대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미래시 공무원'은 ㉠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에 공감하거나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

- 06** ㉡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래시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자연을 즐기는 공간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에 대해 존중하고 있다. ㉣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생태 복합 시설 건설을 제안하는 '미래시 공무원'의 제안의 의의를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 오답 풀이** ㉢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 대표'의 말 중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즉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 07** '미래시 공무원'이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여 산책로를 주택 지역으로 연장하려 한다고 하자, '희망구 주민 대표'는 주민들은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책로를 바라지 않는다고 희망구 주민들은 자연을 느끼며 친구나 가족들과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근원적 동기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희망구 주민' 측의 근원적 동기를 바르게 썼다.	☐

- 08** 논증하는 글을 쓸 때에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해야 하는데, 비유나 상징을 활용한 표현을 많이 쓰면 내용을 내용을 해석하는 데 여러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비유나 상징을 활용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오답 풀이** 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 ③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④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을 쓰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하면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⑤ 주장에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할 자료는 신뢰성,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 09** (가)의 쓰기 맥락 분석에서 학생은 글을 쓰는 목적이 '청소년들이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친교가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이다.

- 오답 풀이** ② 글의 목적에 따라 글의 주제를 '청소년들은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로 분명하게 정했다.
- ③ 예상 독자를 학교 학생들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④ 자신의 글을 실을 매체를 학교 누리집으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⑤ 청소년들이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글을 쓰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0 '개요 작성하기'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논증하는 글을 쓸 때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귀납이나 연역 등의 효과적인 논증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조직한다.

11 (나)의 '결론'은 '금융 이해력'이라는 본문에서 제시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제목'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서론'에서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 상황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작문 관습에 따라 '서론-본론-결론'으로 개요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본론'의 1과 2의 내용을 보면 금융 이해력을 길렀을 때의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보기>의 자료는 금융 이해력 점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신중하게 구매하고, 카드 이용 금액 납부일을 준수하며, 평소 자금 상황 점검을 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 준다. 따라서 '본론'의 2.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자료가 (나)의 내용 중 어느 것과 관련된 자료인지 파악하여 바르게 썼다.	☐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임을 파악하여 활용 방법을 바르게 썼다.	☐

13 (가)에서 개인의 말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므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말이 개인적 담론만을 형성한다는 것은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이라고 하였다.
 ② (나)에서 글을 쓰는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쓰기 전략을 점검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개인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독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쓴다고 하였다.

14 (가)에서는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개인의 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에서는 글을 쓸 때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쓰고 쓰기 윤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개인적 의사소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가)와 (나) 모두 글쓰기와 말하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가)와 (나) 모두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개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므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말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글을 쓸 때에 쓰기 윤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글을 쓰는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쓰기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대단원 평가 2

340~343쪽

-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5 ④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연역의 방법을 사용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지식도 중요하다는 일반적 사실로부터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개별적 사실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11 ⑤ 12 ①

01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의 수정에 관한 이익과 주장이 서로 다른 양측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결국 최선의 합의에 이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⑤ 사회자가 있고, 발언 순서에 따라 주장이 찬반으로 나누는 것은 토론이다.
 ② 상대의 주장에 우선 공감하며 협력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③ 국내외 사례를 다루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토론, 토의

토론	특정한 논거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각자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밝히는 의사소통 방법
토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공동의 의사소통 방법

02 (가), (나)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미래시가 대안으로 제안한 생태 복합 시설 건설과 기존의 산책로 보수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구 주민 대표'가 기존의 산책로 연장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기존 산책로가 사람이 많을 때 붐비는 불편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기존 산책로의 폭을 넓히려는 추가 제안을 하고 있다.
 ② (가)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생태 교육 시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생태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반가운 제안이라고 하였고, 해결 단계인 (나)에서도 결국 생태 교육 시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③ (나)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수달 보호 캠페인과 수달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하며 미래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가)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희망구 주민들이 사랑천 주변을 직접 걸으며 여가를 즐기고 싶어하는 바람이 반영된 생태 복합 시설을 얻게 되었고, (나)에서 이 생태 복합 시설의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에 희망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희망구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을 반영한 협상을 진행했다.

03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기존의 사랑천 연장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희망구에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하고 기존의 노후한 산책로를 보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희망구 주민 대표'는 생태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희망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며 미래시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따라서 이 협상 후 작성한 합의안에는 산책로를 연장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04 협상의 목적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양측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므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05 '민수'는 '철민'의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수용한 정보, 즉 '미래시'가 사랑천 산책로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연'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철민'은 다른 사람 영상을 보고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미래시'와 '희망구'의 협상 합의 내용을 개인 방송으로 전달하고는 자신도 사실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협상을 직접 참관한 '수현'이 사랑천 산책로를 폐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낡은 산책로를 보수하기로 했다는 실제 협상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⑤ '소연'은 '한심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다.

06 (가), (나)는 논증하는 글이다. 논증하는 글에서 논증 방법은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적절한 논증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07 (가)는 청소년이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금융 이해력을 길렀을 때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 이해력을 길렀을 때 우려되는 점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단에서 '금융 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라고 하였다.
- ② 네 번째 문단에서 청소년들은 금융 생활을 성찰하고, 금융 지식을 익히고, 학교 안팎의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 ④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에서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금융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 ⑤ 첫 번째 문단에서 2023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이라고 하였다.

08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2023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이었다. 이는 기준 점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영위하다'는 '일을 꾸려 나간다.', '영유하다'는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여 가지다.'라는 뜻이므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기준 점수가 구체적으로 몇 점인지를 넣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점수가 기준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고쳐쓰기를 위한 조언으로 적절하다.
- ② ㉠ 앞의 내용은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금융 사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 ㉡ 뒤의 내용은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앞뒤 내용이 모두 금융 이해력을 길렀을 때의 긍정적 효과이므로 '또'라는 접속 부사를 ㉠ 앞에 넣는 것은 고쳐쓰기를 위한 조언으로 적절하다.
- ③ 두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면 금융 이해력을 길렀을 때의 긍정적 효과이므로 고쳐쓰기를 위한 조언으로 적절하다.
- ⑤ ㉢은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계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고쳐쓰기를 위한 조언으로 적절하다.

10 [A]는 (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A]에서는 삶을 꾸려나가는 데에 유용한 실용적 지식을 계발하고 길러야 한다는 일반적 사실로부터, 우리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개별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A]에서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귀납과 연역 중,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파악하여 바르게 썼다.	☐
이유를 바르게 썼다.	☐

11 세 번째 문단에서 '주당 평균 31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평균 14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보다 언어 처리에 관여하는 뇌 영역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떨어져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이는 학업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12 (나)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필자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서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과 청소년 일반 사용자군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혀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③ 스마트 쉼 센터 누리집이나 학교에서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한국 지능 정보 사회진흥원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라는 정보의 출처를 밝혀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스마트폰 과의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01 ④ 02 ④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④
08 ① 09 ② 10 2연의 '새'는 울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이입된 자연물이고, 3연의 '새'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미련이다. 11 ③
12 ④ 13 ④ 14 화자의 분신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자기희생적 태도를 의미한다.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15 ①
16 ② 17 ② 18 ③ 19 ③ 20 영화 「업」의 주제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다. 이 주제를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의 이미지로 시각화하였다.

01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지닌 자료들을 읽을 때에는 각 자료에 드러난 화제에 대한 관점을 파악한 후 평가하고, 화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정하여 견해를 재구성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흥미로운 자료 위주로 수용하지 않고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면서 읽는다.
②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파악하면 균형 잡힌 태도를 지닐 수 있지만, 모든 자료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③ 화제에 대한 나의 관점과 다른 관점의 글을 배제해 버리고 읽지 않으면 편견이나 선입견에 빠질 수 있다.
⑤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글과 자료를 보면 편견이나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관점으로 화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02 (나)에서 '나'는 트윈 사이보그인 '그것'에게 대신 회사 일을 맡겨 두고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한 기분에 빠지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인공 지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공 지능으로 인해 생길 부정적 문제들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개인 정보 해킹,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로 인해 인공 지능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나'는 트윈 사이보그인 '그것'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없었다. 이 부분에서 '그것'의 업무 능력이 '나'보다 뛰어남을 파악할 수 있다.
⑤ (가)는 인공 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대해 다루고 있고, (나)는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공 지능 로봇에게 회사 일을 맡긴 후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다.

03 (다)에서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인간의 근본적 가치인 자율성을 잃으면 인공 지능 시스템이 좋은 뜻으로 쓰인다고 해도 최선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스튜어트 러셀 교수가 인간의 공감 능력만이 인공 지능 시대에 최선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역설했다는 내용은 (다)에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 숙고하고 판단해서 행사해야 할 결정권까지 하나둘 기계에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필자가 우려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 ② (다)의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무심코 알고리즘 추천에 의존하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다)의 '더 중대한 교훈은 기계에 의존하는 대가로 인간이 자율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다)의 '다음 세대는 그런 능력을 배울 동기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한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며 문명을 이룬 인류가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서 알 수 있다.

04 (다)의 필자는 인공 지능 시스템이 좋은 뜻으로 쓰인다 해도 인간이 기계에 의존하여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최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스튜어트 러셀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필자가 인공 지능 시스템이 좋은 쪽으로만 쓰인다면 최선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볼 수 없고 인공 지능 시스템이 부정적으로만 사용된다고 하지도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라)에서는 인공 지능 기계의 노동과 인간 노동이 공존하는 것이 미래 노동의 새로운 풍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② (다)에서 필자는 인간이 기계에 의존하면 학습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스튜어트 러셀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③ (라)에서는 인공 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는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제한적인 위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미래 노동의 새로운 풍경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라)의 필자는 인간의 노동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⑤ (라)에서 미래에는 인공 지능 기계의 노동과 인간 노동이 공존하고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노동의 새로운 풍경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05 독서를 한 후 독서 기록장에 기록하는 것은 개인적인 독서 활동이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글이나 자료를 읽고 그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사회적 독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친구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일,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서평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나누는 일 등은 다른 사람과 함께 글이나 자료를 읽고 그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사회적 독서 활동에 속한다.

06 사회적 독서 활동은 독자 개인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독서 활동은 다른 사람과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독자 개인의 성장과 사회 통합과 사회 문화 발전을 돕는다.

07 청중을 고려하는 발표를 할 때에는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으므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예상 청중의 관심사, 지식수준 등을 분석하면 청중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② 발표 목적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표를 준비하면 청중이 발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청중이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청중의 관심을 끌며 발표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하여 발표할 때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08 (가)의 화자는 외롭고 힘든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하므로 (가)의 화자는 자연을 이상향이나 불우한 삶의 도피처로 바라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지은 초가집 세 칸에 달, 청풍을 들이고 강산은 둘러 두고 보겠다고 말하며 자연을 자신과 함께하는 친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③ (가)는 삶의 괴로움, 비애의 슬픔을 느끼며 자연으로 도피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현실이 괴로워 자연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며 (나)의 화자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해하고 있다.

⑤ (가)는 대체로 세 마디로 끊어 읽히는 3음보의 율격이, (나)는 대체로 네 마디로 끊어 읽히는 4음보의 율격이 운율을 형성하는데 운율감 형성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09 (가)의 4연에서 화자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이 혼자가 되는 밤이 되자 절망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 '바쁘(밤)'는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아무도 없이 혼자가 된 시간으로 절망적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청산'에 가고자 하므로 '청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이다.

③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맞은 화자는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고 체념하고 있으므로 '돌'은 화자의 비애를 일으키는 매개체이다.

④ 6연에서 화자는 '바다'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청산과 대응하는 이상향이다.

⑤ 8연에서 화자는 '절진 강수(독한 술)'로써 현실의 고통과 삶의 괴로움을 잊고자 한다.

10 (가)의 2연에서 화자는 새의 울음을 듣고 삶의 비애와 고독을 느끼고 있다. 우는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연의 '물 아래'는 속세를 뜻하는데 화자가 '물 아래'를 바라보는 것은 떠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2연의 '새'의 의미를 화자가 느끼는 심정과 관련하여 바르게 썼다.	☐
3연의 '새'의 의미를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고려하여 바르게 썼다.	☐

11 (나)의 화자는 자신이 지은 초가집에 달, 청풍과 함께 살고 강산은 초가집 주변에 둘러서 보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연과 하나가 된 물아일체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달'과 '청풍'을 의인화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만 삶의 비애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②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의 화자는 십 년을 경영하여 소박한 초가집을 지었다고 하였다.

⑤ (나)에는 농촌의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12 (가)에서 화자는 차라리 죽어서 낙월(지는 달)이 되어 임이 계신 창 안에 달빛을 비추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다는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하지만 (나)에는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임을 붙잡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의 화자는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며,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의 화자가 임이 떠난 후에 임과의 재회를 희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는 이별한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화자가 임을 축복하는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을 떠나려는 임 앞에 진달래꽃을 따다 뿌리며 임을 축복하고 있다.

⑤ (가)는 화자가 이미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한 작품이다. (나)는 화자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라고 말하며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임과의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임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13 ㉢에서 화자는 눈물이 바로 나서 꿈속에서 만난 임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알고자 하지만 '구름'과 '안개'가 깔려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름'과 '안개'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② 화자는 임 계신 곳 소식을 알고자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했지만 사공은 없고 '빈 비'만 있는 모습에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빈 비'는 고독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한다.

③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꿈'에서 임을 만났으므로 '꿈'은 임과 화자의 일시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⑤ 새벽닭 소리에 화자가 잠을 깨니 임은 없고 가엾은 그림자만 자신을 따른다는 의미로, 임과 헤어져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이 드러난다.

14 화자는 떠나려 하는 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심정을 붉고 선명한 이미지의 '진달래꽃'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으로, 임에 대한 사랑과 희생, 끝까지 임에게 헌신하려는 순종을 표상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으로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희생 등을 의미함을 파악하여 바르게 썼다.	☐
'진달래꽃'의 의미를 한 가지 이상 바르게 썼다.	☐

15 혼민정음이 창제되면서 한글 소설이 많이 창작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서사 문학의 향유층이 확대되었다. 한국 서사 문학은 향유층이 확대되며 작품의 주제도 다양해졌는데, 다양한 주제의 작품 속에서 당대의 사회상은 물론 한국 서사 문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서사 문학의 특징은 오늘날까지 다양한 작품 속에 이어지고 있다.

16 (나)에서 수령들은 '본관 사또'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살려고 허둥지둥 도망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임금은 '춘향'을 칭찬하여 정렬부인으로 봉하는데, 이는 여인의 지조와 절개를 중시한 당대의 사회상을 드러낸다.
 ③ (가)에서 '변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고 '춘향'이 이를 거절하자 '춘향'을 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학정을 일삼는 부패한 지배층이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④ '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와 '변 사또'의 횡포를 알게 되고 '변 사또'를 보고파직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부패한 관리를 감찰하는 암행어사라는 벼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기생의 딸 '춘향'과 양반의 아들 '몽룡'이 사랑하여 '춘향'이 '몽룡'의 부인이 된 것에서 당시 조선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나)에는 열거와 대구를 사용하여 4·4조 중심의 배열 등 운율이 느껴지는 운문체 서술이 나타난다. 또한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변 사또'가 겁에 질려 숨는 모습을 비유와 언어유희를 통해 희화화함으로써 풍자하고 있다. (다)에서는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하라.'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18 매체 비평 자료를 읽을 때 여러 다른 매체 비평 자료를 참조하여 자신이 비평한 내용과 비교하면 자신의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자신과 관점이 다른 비평 자료의 내용도 수용하여 읽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마)에서 필자는 영화 시사회에서 받은 빨간 풍선을 받고 집에 돌아와 풍선을 꽃병에 꽂으며 어린 날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다. 필자는 영화에 나온 '풍선'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라는 영화의 주제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영화의 가치를 언급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필자는 캐릭터 디자인은 만화적이고 정감 어린 인물의 느낌을 강조하였지만 배경은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력으로 생생히 살려 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필자는 집이 비행할 때의 우아한 리듬이 서정적이면서 내향적인 음악이라고 표현하였다.
 ④ (라)에서 필자는 초반부에 '칼'이 귀가하는 순간을 대사로 없이 4분 가량으로 압축한 장면과 후반부에 '칼'이 '엘리'의 문장을 발견하는 장면을 인상적인 대목이라고 하였다.
 ⑤ (다)에서 필자는 풍선을 매달고 창공에 떠 있는 집의 이미지가 이 작품의 주제를 시각화한다고 하였다.

20 (다)에서 필자는 풍선을 매달고 창공에 떠 있는 집의 이미지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라는 영화의 주제를 선명하게 시각화한다고 비평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필자가 파악한 영화의 주제를 바르게 썼다.	☐
필자가 파악한 영화의 주제가 어떻게 시각화되었는지 파악하여 바르게 썼다.	☐

2학기 기말고사

352~357쪽

- 01 ⑤ 02 (가)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에서 필자는 최근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의 등장을 쉽고 재미있게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3 ⑤ 04 ① 05 ⑤ 06 ① 07 ⑤ 08 ④ 09 목차 구성하기 10 ② 11 ① 12 므른, 말쌈미 13 ③ 14 ⑤ 15 ② 16 ① 17 ③ 18 ㉠의 '보다'는 부사로 한 단어이므로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하고, ㉡의 '보다'는 조사이므로 제4항에 따라 그 앞 말에 붙여 써야 하기 때문이다. 19 ⑤ 20 ② 21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22 ⑤ 23 ⑤

01 이 글은 기부 참여가 저조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시하고, 쉽고 재미있으며 부담없는 기부의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독자에게 기부 참여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다.

02 (가)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에서 필자는 '퍼네이션'과 같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의 기부 문화가 등장한 것에 대해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기부 참여율에 대해 필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썼다.	☐
(다)에서 최근 쉽고 다양한 방식의 기부 문화에 대해 필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썼다.	☐

03 (다)에서 쉽고 재미있는 기부 방식인 '퍼네이션'은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새로운 기부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라)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은 기부 단체에서 기부 계획을 공개하고 익명의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기부자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② (가)의 '기부를 경험한 사람'은 2013년에는 34.6퍼센트였지만, 2023년에는 23.7퍼센트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약 11퍼센트포인트 줄어든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나)의 '특히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도 조사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마)의 '기부를 하여 일으킨 긍정적 변화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온다.에서 알 수 있다.

04 <보기>는 영국 자선 지원 재단에서 세계 기부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막대그래프로 기부 지수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기부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가)에 나타난 필자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축제 당시를 찍은 동영상 장면으로는 축제에 참여한 학생의 성비,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없으므로 자료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동영상을 활용하면 우리 동네의 모습을 시각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 ② 표를 활용하면 운동의 효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체계적이고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③ 구조도 그림을 활용하면 학교 건물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④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하면 물가 변동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06 보고서는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 조사, 관찰, 실험 등을 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쓴 글로 일정한 형식을 지닌다. 공동 보고서 역시 연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목차를 구성하여 정해진 형식에 맞게 써야 한다.

07 공동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08 보고서의 'Ⅲ. 맺음말'에는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에 쓸 새로운 보고서의 주제를 맺음말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보고서의 목차 중 머리말에는 연구의 배경이나 목적, 필요성 등이 들어가야 한다.
 - ②, ③ 보고서의 목차 중 'II. 본문'에는 연구 설계나 실험 방법,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가 들어가야 한다.
 - ⑤ 'IV. 참고 자료'에는 인용한 자료의 모든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제시해야 한다.

09 공동 보고서를 쓰는 과정은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 → 목차 구성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내용 조직하여 작성하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	확인 ☒
공동 보고서를 쓰는 일반적인 과정의 순서에 따라 괄호 안에 들어갈 절차를 바르게 썼다.	☐

10 '불·휘'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뿌리가'이다. 중세 국어 당시 주격 조사로 '이'가 쓰였고, '가'는 쓰이지 않았다. 주격 조사 '이'는 환경에 따라 '이', 'ㅣ'로 실현되고, 생략되기도 하였다. '불·휘'는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된 형태이다.

- 오답 풀이**
- ① '부루·매'는 '부름(부름)'과 조사 '애'가 결합된 것이다. 'ㅣ'가 양성 모음이고 '애'도 양성 모음이므로 양성 모음끼리 어울린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폰'은 '값다의 '값-'과 어미 '-은'이 결합된 것이다. '값'의 'ㅍ'이 뒤 음절로 옮겨 '기폰'으로 소리나는 대로 이어 적기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시·미'를 보면 글자 왼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는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각 음절의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한 것이다.
- ⑤ '바·루·래'의 '루'에서 중성에 지금은 소멸된 음운인 '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1 '부·매'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숨'으로 '부·매'는 'ㅂ- + -음 + 예'로 분석된다. 이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 '-음/음'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부·들', '부·매'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 ③ '나·랏·말·미' 등을 보면 글자 왼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는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각 음절의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한 것이다.
 - ④ '말·미', '수·비니·겨'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 'ㅣ', 'ㅁ'이 사용되었다.
 - ⑤ 받침을 표기할 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여덟 자만 사용되었다.

12 이어 적기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적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말(체언)+은'은 '므른'으로 '말씀(체언)+이'는 '말씀미'로 이어 적기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어 적기한 형태를 바르게 썼다.	☐

13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을 뜻한다. '어린'은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므로 의미가 이동한 어휘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 '불·휘'는 현대 국어 '뿌리가'로 'ㅣ'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가 쓰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와 형태 차이가 있다. 의미는 모두 '뿌리'로 동일하다.
 - ② ㉡ '하·니'의 기본형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 ' 많다'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하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 ④ ㉢ '노미'는 중세 국어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⑤ ㉣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 '가엿게, 불쌍하게'라는 뜻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14 <보기>에서는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 하였으므로 디지털 매체 사용으로 인해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각자 맡은 역할과 경계가 공고해진 것이 아니라 허물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정보의 확산 속도는 지금 더 빨라지고 파급력은 더욱 커졌다고 하였다.
 - ③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④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일방향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5 '출생률'을 '출생율'로 적지 않는 이유는 한자음 '률(率)'이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11항 [붙임 1]의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법석'을 '법씩'이라고 표기하지 않는 것은 제5항의 '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에 따른 것이다. '법석'은 [법씩]으로 발음되지만 'ㄴ'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면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법석'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③ '견히다'를 '거치다'라고 표기하지 않는 것은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아-나' '하-'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로 소리 내려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④ '양심'을 '량심'이라고 적지 않는 것은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자음 '량(良)'이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⑤ '담백'은 [담뻑]으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데, 이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고,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이다.

16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냇물[넉:물]'이다. 냇물은 순우리말인 '냇'과 '물'이 결합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오답 풀이 ② '베갯잇[베갠닐]'은 <보기>의 '1-(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에 해당한다.

③ '양치물[양친물]'은 '2-(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에 해당한다.

④ '가윗날[가웬닐/가웰닐]'은 '2-(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에 해당한다.

⑤ '머릿기름[머리끼름/머릴끼름]'은 '1-(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해당한다.

17 어제 상을 받은 일, 즉 지난 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미 '-던'을 쓴 것은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지난 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미 '-더라'를 써서 '출더라'로 표기해야 한다.

②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어미 '-든지'를 써서 '가든지 오든지'로 표기해야 한다.

④ 물건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조사 '든지'를 써서 '배든지 사과든지'로 표기해야 한다.

⑤ 어제 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미 '-던지'를 써서 '놀랐던지'로 표기해야 한다.

18 ㉠의 '보다'는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라는 뜻의 부사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의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그 앞말에 붙어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은 같은 형태의 단어이지만 품사가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여, 띄어쓰기 규정을 바르게 적용하여 썼다.	☐

19 기존의 산책로 연장 계획의 수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미래시 측과 희망구 주민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한 갈등을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20 이 협상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수달 보호를 위해 기존의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기를 원하는 입장이고, '희망구 주민 대표'는 기존의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되, 수달 보호 캠페인을 벌이자는 입장이다. 사랑천 산책로 보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미래시 공무원'은 수달 보호를 위해 기존의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는 대신, 산책로 연장 구간을 주택 지역 근처로 옮겨 조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③ 차도 옆으로 나는 산책로를 바라지 않는다는 '희망구 주민 대표'의 말에 '미래시 공무원'은 산책로 연장 구간을 차도에 바로 붙여서 낼 계획이 아니라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④ '희망구 주민 대표'는 원래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하되, 미래시 차원에서 수달 보호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하면서 희망구 주민 자치회 차원에서 봉사 활동 단체를 만들어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⑤ 희망구 주민들은 이미 주택 지역에는 공원이 세 곳이나 되기 때문에 공원을 더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1 ㉠은 상대측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은 상대측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상 태도를 드러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 ㉡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바르게 파악하여 썼다.	☐
㉠, ㉡에 나타난 협상 태도가 협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바르게 파악하여 썼다.	☐

22 논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주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논증 요소

주장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
이유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23 고쳐쓰기는 글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 같은 큰 단위부터 문장, 단어 수준의 작은 단위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여러 번 고쳐 쓸 수 있다.